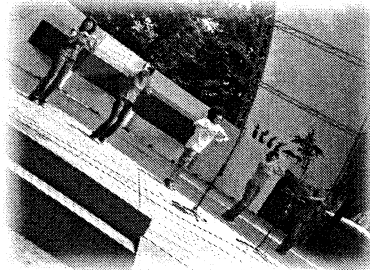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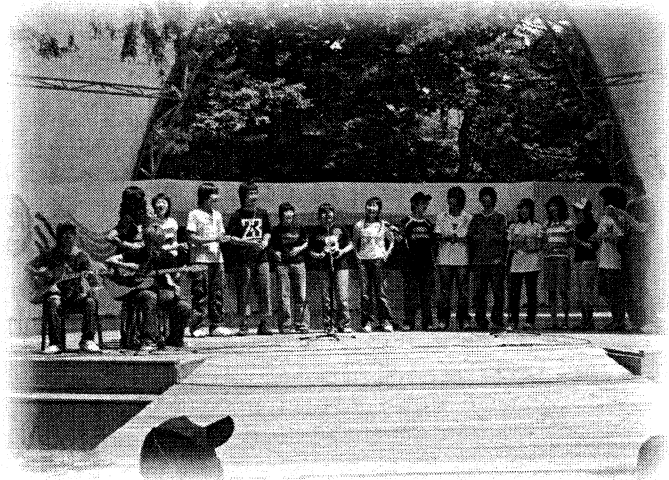


천방지축

우리들의 필리핀 평화여행



2007 제천 간디학교 4학년

- 순서 -

1. 어느글-필리핀은 왜 가까요?	1
2. 2007년 4학년 필리핀 체험 학습 개요	3
2. 필리핀 일정	8
3. 현지 협력 단체 소개 및 방문지 배경 설명	9
4. 필리핀 소개	
가. 필리핀의 역사	22
나. 필리핀의 정치	35
다. 필리핀의 문화	39
라. 필리핀의 경제	42
마. 여행시 주의사항	43
5.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의 언어를	
가. 따갈로그어	45
나. 영어회화	48
6. 출국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가. 필리핀국 비자 안내	52
나. SSP 취득 안내	52
다. 여행자 보험사용 안내	53
7. 비상시 참고사항	55
8. 필리핀 체험학습 TIP	65
함께 부르는 노래	69
함께 가는 사람들	71

필리핀은 왜 갈까요? 지구인으로, 아시아인으로 살아가기 프로젝트

양희창

왜 필리핀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지구촌 세상에서 외국 나가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필리핀을 가는 이유가 어학연수에 있다고 하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공부하기 보다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를 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국내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필리핀으로 3개월 정도 해외체험 학습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어학연수나 경비문제 때문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였는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선명해지리라 봅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아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한 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과학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는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가고 있고 서서히 아시아도 함께 살아가기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조그만 일도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하나의 세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황사가 불면 서울의 거리가 황폐해지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일한 시장으로서의 한 몸 사회는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대다수가 고통 받게 되는 사회 양극화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한 국가보다도 강하고 거대한 자본권력에 의하여 종속되는 세상을 막으려면 아시아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함께 평화를 연습하고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라는 과제는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우리 삶의 진로와 의미를 찾아가는 주요한 열쇠가 되리라고 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여 여러 주변 국가와 관계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영어를 사용하기에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많은 민족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움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학력사회라고 합니다. 배움의 목적이 진리를 추구하고 행복에 이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지식을 심대에 얼마나 습득하였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하여 인격과 삶이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디는 진정한 문명이란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욕망을 조절하고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난한 가운데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정녕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진 욕망을 벗겨내면서 조금씩 치유되는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언어공부는 불안감 속에서 오직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임할 때 결코 향상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웃과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간절하게 소통의 욕구가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영어 하나에 목숨을 걸고 어릴 때부터 알파벳을 외우지만 수 십 년 공부한 결과가 비참해지는 것은 소통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소통하면서 배우는 삶의 지식이 훨씬 풍부하고 원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찾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굳어 있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노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림을 두드리며 마냥 행복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예술인의 세계를 엿볼수 있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감을 지니고 아시아인으로 살아가는 일, 함께 공생하며 세계와 연대하며 살아가는 일이 가능한가를 스스로 가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평화학교를 필리핀, 중국 등지에 세울 예정입니다. 세계의 평화단체나 평화 운동가들과도 폭넓은 교제를 통하여 함께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곧 교사가 되고 활동가가 되어 봉사하며 삶을 나눌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경쟁사회를 극복하는 길은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상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알아 가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과 타자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굳이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실험들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세계의 NGO 조직들이 집중되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현장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필리핀에서 그 의미 찾기를 먼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 2007년 4학년 필리핀 체험 학습 개요

◎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명 : 2007 필리핀 문화 교류
2. 프로그램 주관 : 제천 간디 학교
3. 참가자 : 간디학교 4학년(18명), 필생, 상미생, 이매진 피스팀(Imagine Peace)
4. 장소 : 마닐라, 다스마리냐스, 민다나오
5. 기간 : 2007년 8월 29일 ~ 12월 4일
6. 프로그램 파트너 : 이매진 피스(Imagine Peace; 한국 평화 운동 단체)
마닐라 청소년 NGO 센터(Manila Youth NGO Center)
민다나오 평화 세우기 재단(Mindanao Peacebuilding Institute)
민다나오 젊은 예술인 연대(Mindanao Youth Artist Network)
코타바토 청소년 센터, 평화 학교
(Cotabato Youth Center, Peace School)
카위권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Camiguin)
Enigmata Creative Circle (Program Coordinator)

◎ 프로그램 목적

-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넓힌다.
- 필리핀 내 다양한 NGO 활동을 체험한다.
- 같은 아시아 인으로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이해한다.
-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가치관을 세운다.

◎ 프로그램 목표

-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키운다.
- 살아있는 현장 학습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든다.
-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 학습을 통하여 국제 의사소통의 자신감을 얻는다.
- 아시아의 청소년과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관계를 형성한다.
- 민다나오에서 문화 예술인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평화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 프로그램 소개와 일정

1. 마닐라 프로그램 (필리핀의 영혼 바라보기)

- 프로그램 소개 : 필리핀 전체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 성격을 띠며, 1주 동안 필리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닐라 내의 유적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마닐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다양한 NGO들을 방문하여 필리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알아본다.
- 프로그램 진행 : 에니그마타(Enigmata)
- 장소 : 마닐라
- 기간 : 8.29(화) ~ 9.5(수)

- 프로그램 일정 :

Luzon	필리핀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8.29	숙박 확인 및 짐 풀기
8.30	오리엔테이션 - 필리핀에 대한 공부 (정치, 지리, 문화, 역사)
8.31	Metropolitan 박물관, 국립 박물관, Intramuros, Rizal Park 방문 필리핀 음식 체험
9.1	Bulacan 역사 유적지 체험, Pampanga, Angeles 한인 지역사회 방문
9.2	Bamban, Death March 유적지 방문 (또는 Mabalacat, bahay na Pula 카미카제 조종사 출정지 위안부 현장 방문)
9.3~4	PREDA, Olongapo, 수빅만·전 미군 기지(현지에서 1박, Aeta 부족 방문)
9.5	CRIBS 방문, 학대 아동 보호 프로젝트 워크숍 진행. TUKLASAN(거리 아이들 보호소), KUYA(거리의 소년들 보호단체) TAHANAN STA. LUISA(거리의 소녀들 보호단체) 방문
9.6	Bataan, Corregidor, Bataan Death March. 다르마리냐스로 이동

2. 어학 연수 프로그램(마음으로 대화하기)

- 프로그램 소개 : 영어로 대화하기가 흔하지 않은 한국 학생들에게 의사 소통 기술로서의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감뿐만 아니라 외국 문화에 접근하는 벽을 낮추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민다나오에서 진행될 평화 프로그램을 체화하는데 더 용이할 것이다.

- 프로그램 진행 : IEC(International English Center)
- 장소 : 다스마리냐스
- 기간 : 9.6(목) ~ 11.2(금) 약 8주
- 프로그램 일정 : 평일-언어 학습(6시간), 공동프로젝트(1시간, Musical 등)
주말-여행

3. 마닐라에서 민다나오로-지역사회를 체험 하는 비사야(Visayas) 제도 향해 여행(마음과 마음 잇기)

- 프로그램 소개 : 루손섬에서 출발하여 민다나오에 이르는 향해 여행을 한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네그로스(Negros)의 유기농 및 대안 무역 현장, 세부(Cebu)의 빈민 사회, 보홀(Bohol)의 발도르프 지역사회 운동 현장을 찾아보며 빈부의 문제, 관광산업에 밀려난 원주민들의 삶, 새로운 대안 운동을 알아 나가고자 한다. 카미귄(Camiguin)에 도착하면 이 여정이 마무리를 짓고 민다나오에서의 평화 활동을 시작한다.

- 프로그램 진행 : Enigmata
- 장소 : Negros 섬, Cebu, Bohol(생태 농업), Camiguin
Cotabato 갈등 지역(청소년 평화 캠프)
- 기간 : 11.3(토) ~ 11.14(수)
- 프로그램 일정 :

Visayas **마음과 마음 잇기**

(Negros : Negros Occidental[서네그로스] - Negros Oriental[동네그로스] - Bacolod City - Dumaguete City, Cebu : Cebu City - Tagbilaran City, Bohol)

- 11.3 **Negros** 도착. 숙박 확인, Balay Kalinaw, LaSalle Bacolod
- 11.4 Negros 박물관, Negros Showroom, Animo Puppet Theater
- 11.5 Silay, Mon Horfelina 문화 유산 답사
- 11.6 Mambucal 온천, 폭포
- 11.7 생태 유기 농장, 대안 무역 현장 견학
- 11.8 Kanlaon 화산, Negros 숲지대
- 11.9 Mabinay route 거쳐 Dumaguete(두마게티)로 트래킹, Siliman 대학 방문
- 11.10 **Cebu** 도착. 역사 유적지 답사
- 11.11 NGO 및 지역 공동체 현장 견학, IJM, ECPAT 등
- 11.12 **Bohol** 도착. Dao Diamond 에 숙박. 생태-문화 여행
- 11.13 Bohol 인근 도서 지역 탐방(또는 유기농 농장 견학)
- 11.14 장애우를 위한 발도르프 교육 기관 방문. CDO(Cagayan De Oro) 향해 출발

4. 민다나오 프로그램(내면의 언어 찾기)

- 프로그램 소개 : 먼저 고유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소수 민족 마을을 방문한다. 그들의 평화로운 삶의 방식과 공유의 삶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민다나오의 많은 지역사회들은 분쟁에 노출되어온 지역이다. 이곳에서의 평화 학습과 관련 활동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 단계적인 평화 활동들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

- 일정 : 11.15 ~ 11.20 Camiguin Inner Lagnuage Camp
 11.21 ~ 11.24 Waway 씨 부족 체험
 11.25 Davao로 이동, 휴식
 11.26 ~ 11.27 Kublai씨와 함께 하는 Davao 예술 워크숍
 11.28 ~ 11.29 무슬림 커뮤니티 프로그램, 평화 축제 개막 콘서트
 11.30 ~ 12.2 2007 민다나오 청소년 평화 캠프
 (협력 단체 CRS: Catholic Relief Services)
 12.3 휴식
 12.4 귀국

가. 내면의 언어 찾기 워크숍(Enigmata 평화 캠프)

- 프로그램 소개 : 첫주 동안 Camiguin의 Enigmata 평화 캠프를 통해 아름다운 열대 경관을 배경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 보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 치유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자신을 치유하고 남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든다.
- 프로그램 진행 : Rosalie Zerrudo, Waway Saway, Kublai Millan, Pi Villaraza, Tatting Soliva, Errol Balcos
- 장소 : Enigmata Treehouse (Camiguin) / Waway씨의 Talaandig 마을

Mindanao	Inner Language (Enigmata Treehouse)
Camiguin	
11.15	Camiguin으로 이동. 숙박 확인.
11.16	섬 탐방
11.17	종다양성 트랙따라 크로스 컨츄리
11.18	내적 연대감 및 소통 워크숍
11.19	내적 언어 찾기 워크숍
11.20	창조적 개방(Creative opening) 워크숍
11.21	CDO로 다시 이동, White water 래프팅, 레펠, canopy walk, Waway 부족이 있는 Bukidnon으로 출발 (하루 정도 단축 가능성 있음)

나. Waway씨 부족 체험

- 프로그램 소개 : 소수 민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가난하지만 아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을 방문한다. 그들의 삶에서 평화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기간 : 11.21(수) ~ 11.24(토)
- 장소 : Waway 마을
- 프로그램 진행 : 로사, Waway, Tatting, 울손

다. Kublai씨와 함께 하는 민다나오 예술 체험

- 프로그램 소개 : 지역 예술가 쿠블라이와 함께 자유로운 예술 체험 활동을 하면서 예술을 통한 영혼의 자유를 가져본다.
- 기간 : 11.26(월) ~ 11.27(화)
- 프로그램 진행 : 쿠블라이(Kublai)

라. 무슬림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Mindanao 평화 축제 개막(11월 말)

- 프로그램 소개 : 마지막 주는 민다나오 평화 축제에 참가한다. 분쟁의 아픔이 있는 민다나오 사람들과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활동가들이 만나 만든 축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를 표현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와 연대를 다진다. 민다나오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 또한 평화에 대한 갈망과 그 기쁨을 한껏 누리길 희망한다. 분쟁지역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이들이 진정 원하는 평화를 축제로 표현하고 나누며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며 우리도 하나가 되어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진다.
- 기간 : 11.28(수) ~ 11.29(목)
- 장소 : Mindanao
- 프로그램 진행 : CRS, 에니그마타 예술가 그룹, 이매진 피스 팀

마. 2007 민다나오 청소년 평화 캠프

- 기간 : 11.30(금) ~ 12.2(일)
- 프로그램 진행 : CRS

바. 마무리

- 평가 및 휴식 : 12.3(월)
- 귀국 : 12.4(화) 13시 출발(마닐라 국제 공항), 18시 인천 공항 도착예정

2. 필리핀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8.26	8.27	8.28	8.29 출국	8.30 Luzon trip 시 작 오후-마닐라 투어	8.31 빈민지역 방 문	9.1 거리의 아이 들(Preda)
2	9.2 미군기지(수 빅)	9.3 ----->	9.4 커뮤니티 스 데이	9.5 ----->	9.6 Dasma IEC학원으로 이동	9.7 level test	9.8
3 (1)	9.9	9.10	9.11	9.12	9.13	9.14	9.15
4 (2)	9.16	9.17	9.18	9.19 어	9.20	9.21	9.22
5 (3)	9.23	9.24	9.25	9.26	9.27	9.28	9.29
6 (4)	9.30	10.1	10.2	10.3 학	10.4	10.5	10.6
7 (5)	10.7	10.8	10.9	10.10	10.11	10.12	10.13
8 (6)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9 (7)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 (8)	10.28	10.29	10.30	10.31	11.1	11.2	11.3 Visayas tour 시작
11	11.4 민다나오로	11.5 가는 성 여 행	11.6 (보홀, 네그로스,	11.7 세부 등)	11.8	11.9	11.10
12	11.11	11.12	11.13	11.14	11.15 Mindanao trip 시작	11.16 에니그마타 평화프로그램 (~11.20)	11.17
13	11.18	11.19	11.20 래프팅	11.21 와와이 마을 (~11.24)	11.22	11.23	11.24
14	11.25 다바오로 이 동	11.26 쿠블라이 예술가와의 만남(~11.17)	11.27	11.28 무슬림 커뮤 니티 프로그 램	11.29 opening of peace week	11.30 평 화 캠프 (~12.2)	12.1
15	12.2	12.3 자유시간	12.4 입국	12.5	12.6	12.7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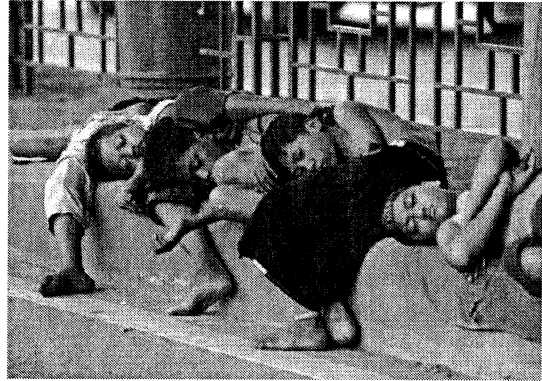
3. 현지 협력 단체 소개 및 방문지 배경 설명

가. 전체 프로그램 협력 - Enigmata Creative Circle

이번 필리핀 체험 학습의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세부에 대한 조언을 해준 단체이다. 뒤의 민다나오 편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나. 마닐라

마닐라에서 우리는 개발과 빈부 격차,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주로 거리의 아이들과 만나면서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수천여 명에 달하는 필리핀 거리의 아이들. 결손 가정, 폭력과 각종 마약의 희생양이기도 한 이들은 구걸과, 도둑질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Child Hope를 비롯한 여러 NGO들이 이 어린이들의 보호와 숙식 제공, 새로운 삶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복지 제공을 통해 아이들을 거리에서 집과 학교로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거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



마닐라시내 거리의 아이들

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설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가난은 필리핀만의 문제도 아니며 우리 사회에도, 서구 선진국에도 존재한다. 가난을 딛고 일어서는 노력과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희망, 그리고 가난을 야기하는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에 눈뜨고 평등한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닐라에서 방문할 NGO들

① KUYA

따갈로어로 Old brother,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중에 7세에서 15세 까지의 어린 남자 아이들을 모아 거리로부터 격리시키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센터이다. 일정 수준이 되면 회의를 거쳐 다른 센터로 옮겨지는데 KUYA는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센터이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집 없는 길거리 가족들에게도 상담을 한다.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검정고시와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24시간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1주일에 1~2회 정도 일로 간신히 생활하고 가족을 가끔만 보는 아이들, 가족이 있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일을 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순서대로 교육을 통해 이 곳으로 데려온다.

꾸야는 거리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시켰다. 거리의 아이들을 정규학교로 편입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형식적 비형식적 혹은 직업 교육의 방법으로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습관적 약물남용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은 그 습관을 단절하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한다. 심리적, 물질적으로 혹은 성적인 학대를 심하게 경험한 아이들에게는 전문적인 상담과 장기적 관찰을 제공한다. 센터에 있는 동안 아이들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치관, 읽기, 쓰기, 건강, 종교교육, 스포츠, 아동의 권리 등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된다.

② Tahanan Sta. Luisa

“The Tahanan Sta. Luisa”는 CHILDOHOPE의 한 프로젝트로써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18세 이하 거리 소녀들과 성적학대 혹은 매춘의 경험이 있는 소녀들의 통합(인격적)을 지지하고 재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거리의 소녀들과 성적학대를 받은 아이들에게 임시적·치료적·가정적 환경을 제공하여 거리의 위험과 학대적인 환경을 예방하도록 한다. 센터에 있는 소녀들은 긍정적 가치관의 함양에 도움을 받으며 자기존중과 자기충족감을 증진시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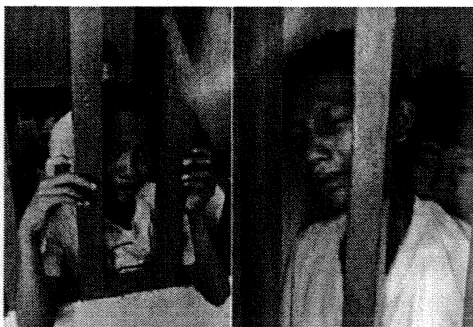
③ TuKLaSan Center (<http://www.erdafoundation.org/projects.html>)

1991년 ERDA Foundation, Inc(the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assistance; 교육 연구와 발전 지원 센터)은 Tuklasan 센터라는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그 의미는 Tuklas(발견), Kalinga(보살핌), Laruan(놀이), Aralan(배움), Sanayan(훈련)이다. 이 센터의 주요한 목적은 거리의 아이들에 관련된 문제에 대응할 돌봄과 보호와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ERDA의 도움으로 새 빌딩이 메트로 마닐라 San Juan에 설립되었고 이 빌딩은 17세 이하 거리의 청소년들을 위한 임시 거처 되었다. 25~50 명의 아이들이 지낼 수 있으며 6개월에서 2년 동안 체류 가능케 되어있다. 일년에 100~150 명의 아이들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스텝들은 한 달에 2~4번은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현장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단체 목적

1. 아이들의 요구, 문제, 관심사를 해결한다.
2. 가정이 없는 아이들은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관련 기관으로 이전하기까지 가정생활을 제공한다.
3. 센터에 있는 동안 음식, 숙소, 옷, 돌봄, 보호,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제공한다.
4. 아이들에게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상담을 제공한다.
5. 가능할 때마다 아이들을 정규학교로 돌려보내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④ PREDA (<http://www.preda.org/>)



마닐라내 유치장에 구금된 어린이들-PREDA는 어린이들이 처한 각종 인권 탄압의 환경을 개선 시키고자 한다.

PREDA는 1974년 Ologngapo 시에 설립된 비영리 자선 단체이다. 주요 목표는 필리핀인들-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모하는 것이다. 주된 활동은 성착취, 학대 아동을 도와주고 그들이 사회에서 이해받고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발, 조사 활동뿐만 아니라 이들 학대받은 아동들을 구호하고 치료하며 범죄자들에게는 법적 심판이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오늘날 필리핀 내 관련 단체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의 약자들이 받는 억압, 착취 등 불평

등한 구조를 바꾸고 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12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 어린이 구호 활동 - 가정, 거리, 매음굴 등에서의 성적 착취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 구호, 안식처 제공,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2. 학대 어린이 보호와 범법자 처벌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3. 어린이 구호 활동 - 감옥, 일터 등 어린이가 법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 비인간적 환경을 개선코자 한다. 필리핀에서는 어린이가 어른들과 같은 방에 수감될 수 있어 각종 범죄가 강화 될 수 있는 환경이다.
4. 거리의 아이들 교육-열악한 환경의 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 법률 서비스, 상담, 의식주 제·의료 제공 등의 활동을 한다.
5. 공공 교육 및 예방 세미나 - 교사, 청소년 활동가 들에게 아동 학대, 약물 남용, AIDS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6. 인권교육 및 사업
7. 연구 및 관련 조직 연대 활동
8. 토착 부족 사회 보호 활동 - 다양한 소수 부족 지도자들에게 종족·환경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연수를 하며 정부 및 군부와 마찰을 빚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9. 청소년 조직 구성 및 활동 강화 훈련
10. 학위 수여 -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장려한다.
11. 안전한 인터넷 캠페인 - 인터넷과 컴퓨터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차단, 아동 유해 환경 방지
12. 공정 무역(또는 대안 무역) - 26개 마을과 도시 기반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범 국가 지원 사업. 이들이 생산한 질 좋은 수공품, 무공해 과일 등이 PREDA를 통해 공정한 가격에 수출되며 수익금은 마을 환경 개선, 가족 부양 기금 등으로 조성된다.

⑤ 미군 기지 반환 문제와 미군기지 정화 처리 위원회 PTF-BCU

미국 해군의 해외 최대 기지라 일컬어졌던 수빅 기지. 육지의 총면적만 해도 7,000헥타르나 되는 이 곳은 1992년에 필리핀에 반환되고 나서 주변의 올롱가포 시, 수빅 시, 모롱 시, 헬모사 시와 함께 수빅 베이 프리포트 존(Subic City Free Port Zone)으로 탈바꿈했다. 대만을 비롯해 많은 외국 기업의 유치에 성공해, 지금은 하나의 산업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군이 남겨놓은 공항은 국제 공항이 되었고, 미군이 사용하던 시설을 이용한 관광개발이 왕성하다. 그러나, 관광지로 변한 이 곳 기지터의 이면은 미군의 무책임한 사용으로 인한 엄청난 환경 오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보상 없이 양도받음으로써 그 고통이 고스란히 필리핀 민중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쓰라린 현실로 덮여 있다.

수빅 해군 기지와 더불어 클라크 공군 기지터 역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 마닐라의 북서쪽 90km, 엔젤레스(Angelas)시 교외, 피나투보 화산의 산록에 있는 클라크 미군 기지터는 총면적이 550 평방 km로 싱가포르의 전체 면적과 맞먹는 넓이다. 1902년 이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일시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미국의 해외 군사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1991년 피나투보 화산의 분화를 즈음하여 미군은 기지를 철수했고, 수빅 해군 기지와 더불어 필리핀에 반환되어 클라크 특별 경제 구역으로 재편성되었다. 수빅 처럼 호텔, 골프장 등 관광지화 되고 있지만 기지 오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지역 주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군사 강국 미국이 세계 곳곳에 만들어 놓은 기지들이 반환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는 단지 필리핀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미군기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당한 보상과 복원 없이 돌려받은 우리 땅의 미군에 의한 오염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하나 없는 상황이다.

필리핀은 혁명을 통해 300년 이상의 스페인식민지를 종식시키고 1898년에 독립공화국을 선포했다. 하지만 미국은 파리협정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2,000만달러에 매입하였다. 오랜 식민지 경험 후 다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된 필리핀인들은 저항을 시작했고 이에 필리핀-미국전쟁이 일어났으며 필리핀인은 엄청난 희생자를 냈지만 결국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후 44년 동안 미국의 직적접인 식민지가 되었다.

2차대전 중에는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으며 2차대전 후에는 다시 미국이 군사적 전략의 일환으로 미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후 많은 입법자들이나 민중이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했으며 1991년에 드디어 상원에서 미군기지 철수를 결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군기지 철수에 따른 기지 내외의 오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또한 미군은 이후 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계속 거절했으며 필리핀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철수 이전에 미군기지는 7개가 있었으며 그 중 가장 큰 기지가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 해군기지였다. 이들은 미군의 해외기지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경제적으로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관광구역으로도 재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수질, 토양 등의 오염으로 이들 지역과 인근의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났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기지 정화 처리 위원회 PTF-BCU는 필리핀에서 미군기지 철수 후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이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문 유적지

리잘 공원(Rizal Park)과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리잘 공원은 58헥타르의 드넓은 부지를 지닌 시민의 휴식처로서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세 리잘을 기념하여 만든 공원이다. 그 바로 북쪽에 있는 인트라무로스는 16세기에 스페인인이 필리핀 통치의 근거지로 삼았던 성채도시다. 성채 주위에는 성벽이 형성되어, 예전에는 스페인인과 메소티조(스페인인과의 혼혈)만 살 수 있었다고 한다. 12개의 교회, 대학, 병원 등이 있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폭격으로 인해 모두 파괴되고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건물은 산 어거스티 교회(San Agustin Church)뿐이다. 성벽 도시가 걸어온 중후한 역사를 느낄 수 있으며, 리잘 공원과 함께 마닐라 관광의 중심을 이룬다. 산티아고 요새(Fort Santiago)에 있는 호세 리잘 기념관에는 그가 쓴 시가 벽과 바닥에 새겨져 있는데 한글 번역도 있으니 꼭 읽어 보길 권한다.

알고 있나요?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 호세 리잘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 호세 리잘(1861~96). 의사, 시인, 소설가 등 다채로운 직업과 재능을 지녔던 그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인트 토마스 대학을 졸업한 뒤 서양으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에서 돌아온 후 26세에 '노리 메 탄레시

(내게 닥친 것)' 라는 소설을 집필했다. 스페인 지배가 얼마나 위선에 가득 찬 것인지를 고발한 이 소설은 스페인 지배와 관련해 대다수 민중이 생각은 있어도 말할 수 없었던 불만과 분노를 대변한 내용이었다. 결국 그가 후에 시작하는 독립운동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스페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리잘은 박해로부터 도망쳐 세계 각지를 전전했다. 그러나, 1892년, 위험을 각오하고 마닐라로 돌아온 그는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스페인 정부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고 귀환 후 얼마 되지 않아 민다나오섬에 유배되는 등 실형을 받고 1896년에 군사재판을 통해 마닐라의 산티아고 요새에서 총살되었다. 그러나 그의 처형은 민중에 의한 반정부 운동에 불을 지폈고, 그것은 필리핀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리잘은 지금도 필리핀의 영웅이다. 국민의 마음에 계속 살아 있으며 마닐라의 리잘 공워누에는 리잘 동상이, 산티아고 요새에는 기념관이 남아 있다.



필리핀 독립 영웅
호세 리잘



호세 리잘 공원에 있는 리잘의 처형장면 재현 동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필리핀 화가들의 데생과 유화, 수채화 등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꼬레히도르(Corregidor)

꼬레히도르 섬은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45km, 바탄(Bataan) 반도에서 6km 떨어진 마닐라 만에 있는 작은 섬으로 전쟁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섬이다. 마닐라 만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스페인 통치 시대에는 이곳에서 외국 선박의 입국 관리가 이루어졌고, 꼬레히도르라는 이름도 스페인어의 '엄격하게 심사한다'에서 유래하였다.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1902년에는 마닐라 만을 지키기 위한 군용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꼬레히도르 군데군데 있는 대포는 1941년, 일본에 침략당할 때까지 이용되었다. 이 전쟁들에 사용된 포대와 병사 터가 지금도 남아 있고 기념비와 자료관이 곳곳에 있어서 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섬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곳곳에 산재한 전쟁의 기억을 더듬어 우리의 평화 여행에 값진 의미가 되었으면 한다.

스페인 점령시부터 이상적인 방어선으로 인식되었던 꼬레히도르 섬은 2차 대전 때 일본에 함락되기전까지 미군의 마지막 저항지였으나 맥아더 장군이 도주하고 이후 남아있던 엄청난

수의 미군과 필리핀군들은 포로가 되어 바마리벨레스에서 타를락의 강제 수용소까지 이동하는 "바타안 죽음의 행군" 도중 목숨을 잃었다. 지금은 관광지로 변해 있지만 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무너진 막사와 해변 대포를 보며 일제에 의해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할아버지들의 죽음도 애도했으면 한다.

주요 유적지로는 2차 대전 중에 폭격을 피하기 위해 군 사령부로 사용되었던 길이 250m, 너비 7m의 말린타 터널(Malinta Tunnel)이 있고 1968년에 미국 정부가 300만 달러를 들여 건설한 태평양 전쟁 기념관이 있다.

다. 다스마리냐스

IEC(International English Center)

마닐라에서 1시간여 떨어진 중소 도시 다르마리냐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설립되었다. 우리의 체험학습에서 8주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보낼 곳이다. 이로 인해 자칫 어학의 성격이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겠으나 국제 소통어로서의 영어, 특히 이웃이자 연대의 대상으로서 아시아인·세계인과 벽허물기를 위해서는 영어의 무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시험을 위한 영어 학습이 아니라 현지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 학습의 의미를 제대로 살렸으면 한다. 이곳에서의 영어 학습이 이후에 진행될 민다나오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전체 체험학습의 의미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하니 이번만큼은 영어 공부에 신경을 쓰자.

주말 여행지

다스마에서의 8주 동안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주말에는 학교에서처럼 휴식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총 8번의 주말 중 4번은 아름다운 필리핀의 자연을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한다.

팍상한(Pagsanjan)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팍상한은 마닐라에서 갈 수 있는 당일 관광지로 유명하다. 계곡의 매우 아름답고 유명한 영화 '지옥의 묵시록'도 이곳에서 촬영되었다고 한다. 이 곳에 세계 7대 절경 중 하나라는 팍상한 폭포가 있다. 마닐라 주변에서 가장 큰 강을 끼고 있는 폭포이기에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 폭포를 보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기에 유명세를 타기도 한단다. 약 1시간 반 동안 카누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폭포에 다 와서는 뗏목을 타고 통과하는 경험이 인상적이라고.

따가이따이(Tagaytay)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64km, 카비테 주(Cavite)에 있는 따가이따이(Tagaytay)는 해발 700m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서는 탈 호(Lake Taal)에 떠있는 탈화산(Taal Volcano)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탈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진 활화산이다. 산길이므로 튼튼한 신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라구나(Laguna)

라구나는 마닐라의 외곽에 위치해 있고 온천이다. 열대 기후의 나라라서 사계절을 가진



뗏목 타고 통과하는 막대한 폭포

우리나라와 달리 온천의 물이 뜨겁지만은 않다. 수영장을 겸하고 있다고도 할 정도로 넓고 쉬어가기 좋다고 한다. 낮과 달리 밤이 되면 물이 점점 뜨거워진다고 한다.

마타붕카이(Matabungkay) 바닷가

마타붕카이는 마닐라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다. 파도가 잔잔하고 물이 얕아 발사하고하는 대나무 뗏목을 만들어 해수욕을 즐긴다고 한다.

라. 비사야 투어

비사야 투어에서는 Negros의 대안 무역 현장, Cebu의 다양한 NGO 단체, Bohol의 유기농 현장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단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대안 무역 등 중요한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Negros 섬의 대안무역

대안무역은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빈곤을 공정한 무역이라는 방식을 통해 없애고자 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하루에 \$1도 채 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세계에는 너무 많다. 대안무역은 수입원이 없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친환경적인 수공예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시키고,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소규모 농민들을 중간상인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상품을 공정한 가격에 직수입하는 활동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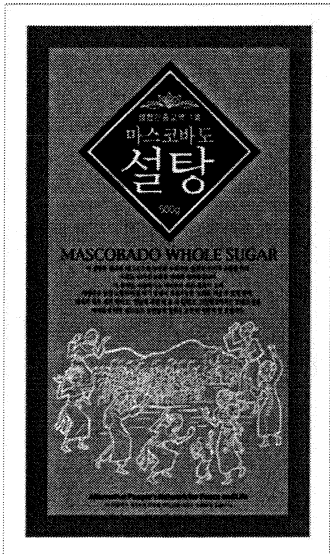
이러한 무역방식은 물건들이 선진국 소비자들의 윤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기에 생산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속한 지역 사회까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기존의 무역이 인간보다는 이익을 위해 행해져 왔다면, 대안무역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생각하며 진행되고 있다. 공정한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아래에서부터 걷어내는 것, 인간을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는 무역이 바로 대안 무역이다.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대안무역

우리나라에서는 두레 생협(www.dure.coop)이 2004년 '민중교역' 회사 에이피넷(APNet)을 만들어 필리핀 네그로스의 마스코바도 설탕, 팔레스타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수입·판매해왔다. 지난해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coffee.org)는 네팔 유기농 커피 '히말라야의 선물'을 들여와 백화점,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팔고 있다. '이주노동자 합법화 모임'(stopcrackdown.net)은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작은 대안무역'을 통해 네팔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만든 옷과 액세서리 등을 팔아 이주노동자 운동과 대안무역 운동을 결합시켰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공정무역은 최근에야 국내에 상륙했다. 아름다운재단이 2003년 9월부터 2년여간 네팔·인도 수공예품을 수입해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팔면서 '대안 무역'이란 이름으로 공정무역을 알렸다. 이듬해 6월 두레 생협이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



민중교역회사 APNet이 네그로스 주민들과 직거래하는 마스코바도 설탕

도 설탕을 팔기 시작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생협은 필리핀 생산자를 돕기 위해 2000원짜리(500g) 설탕 한 봉지를 팔 때마다 200원을 기금으로 적립했다. 지금까지 1400여만원을 모아 현지 개선 작업에 썼다. 특히 생산자들이 예전처럼 쌀과 작물을 자급할 수 있도록 강제로 만들어진 사탕수수밭을 본래의 논·밭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펼쳤다.

YMCA가, 이어 아름다운 재단이 잇달아 커피를 수입·판매하면서 공정무역이 본격화했다. YMCA(www.ymcakorea.org)는 2005년 10월부터 동티모르 샤메 지역의 커피를 ‘동티모르 평화 커피’라는 이름으로 전국 60개 YMCA 지부와 녹색가게 20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440g에 3만원. 생산비용을 뺀 수익 전액이 현지 커피농의 자립을 위해 사용된다.

원창수 YMCA 대외협력팀장은 “커피 판매는 동티모르 구호활동의 일환”이라며 “현지인들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야생커피를 수입·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커피 농사라는 개념조차 없는 현지에 생산자 조합을 만드는 것

이 목표다. 아직은 우물부터 커피 원두를 운반할 나귀까지 지원해야 하는 형편이다. YMCA가 지금까지 커피농가에 지원한 금액은 3억원에 이른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히말라야 자락의 네팔 고산지대 굴미 지역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해 ‘히말라야의 선물’(www.beautifulcoffee.org)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국제 유통가의 3배에 가까운 kg당 3.45달러의 ‘정당한 가격’에 구입해 온다. 원두는 국내 로스팅을 거쳐 아름다운가게 75곳, 생협, 이화여대·한국외대 등 전국 14개 대학 생협 매장, 카페 등에서 판매된다. 200g 1만원.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유통마진이 높지만 유통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가격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며 “아무리 공정무역 커피라도 유통시장에서 배려해 주는 것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모든 대형마트에 취지를 설명하고 납품을 요청했지만 선뜻 받아들인 곳은 홈플러스 한 곳뿐이었다. 월 매출은 1800만원 정도. 수익금 전액은 현지 커피 농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공정무역 전문 무역회사도 곧 선보이게 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12일 국내 첫 공정무역 전문업체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시민 주주 모집에 나섰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인도 소생산자들로부터 원단을 수입하고, 청계천 피복노동자 공방에 디자인과 바느질을 맡겨 의류·생활용품을 제작, ‘GRU(그루)’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다. 네팔·인도·라오스 등의 수공예 의류도 수입·판매할 예정. 본격 판매는 내년 봄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일본 공정무역업체 ‘네팔리 바자로’의 의류를 수입해 쇼핑몰(www.ecofairtrade.co.kr)에서 판매하고 있다. 상의 5만~9만원, 하의 7만~10만원 정도다.

네그로스의 대안무역

네그로스섬은 본래 농사짓기에 비옥한 땅이어서 옛날에는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토질을 가진

네그로스섬에 외국 자본과 대지주들이 몰려왔고, 그들은 네그로스섬의 모든 땅을 사탕수수 밭으로 바꿔버렸다. 울창하던 숲이 사탕수수 밭으로 개간되었고, 대량생산을 위한 다량의 화학비료는 비옥한 토질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섬의 농민들은 외국 자본과 대지주 소유의 대규모 농장에 하루 벌이 노동자로 일했다. 그들이 받는 임금은 고작 가족의 끼니를 채울 정도였고, 세계 시장에서의 설탕 가격이 하락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잃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만 했다. 수만 명의 어린 이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을 죽어갔다.

그간 세계 각지로부터의 긴급 원조가 이어졌지만 자본가들 밑에서의 억압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일시적 원조가 아니었다. 농민들은 원조가 아닌 교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안정적인 삶을 이루길 바랐고 그 요구에 부응할 소비자가 대안무역의 형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스스로 생산한 물품을 정당한 대가로 구입해주는 소비자가 있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대규모 단일 경작으로 황폐화된 땅을 소규모 가족 단위의 유기농업으로 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대안 교역은 민중교역이라 할 수 있으며 네그로스의 생산자와 자연을 살리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네그로스에서는 사탕수수의 생산성 증대 뿐만 아니라 사탕수수 밭을 원래의 논밭으로 바꾸어 농업 다양성을 살리고 유기농업, 여성 자립 환경, 마을 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있으며 네그로스 생산자들에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교류 기금이 이른바 '네그로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었다.

알고 있나요?

우리가 입는 옷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질까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에서 시작되었던 세계 의류 생산 공장들은 생산단가가 더욱 싼 곳을 찾아 3세계 국가로 이동하였다.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생활을 위해 이러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물건을 생산하며 세계 의류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의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일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개 이들 나라의 임금 수준이 열악하고 만성적인 취업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공정 무역은 이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직거래 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돌려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한편 이익을 위해 환경파괴까지 서슴지 않는 대기업들의 생산 방식에 반대하며 생태적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있다.

마. 민다나오

민다나오는 최근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분쟁을 겪고 있는 분쟁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민다나오는 동시에 평화교육 및 평화의 문화 운동이 어느 곳보다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민다나오 내의 학교 중 80개 학교가 평화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 뿐 아니라 각종 청소년 센터, 주민 교육, 교회, 모스크 등을 통해 트라우마 힐링, 종교간 대화, 평화적 과정에의 참여 등 평화 교육을 통해 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시작된 민다나오 평화건설센터는 미국 동부 메노나이트 대학에서 매해 진행하는 여름 평화건설 워크숍을 아시아 활동가들을 위해 개설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6년째 매해 3주간의 평화훈련 워크숍과 필드 익스포저를 주관했다. 민다나오에서 이런 세계적인 평화훈련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민다나오에 CRS(Catholic Relief Service) 및 카리타스, 유니세프 등의 국제 NGO 및 유엔의 집중적인 역량강화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킷 지역의 경우 지난 2년간 평화 지역으로 선포하고 수천 명이 평화교육을 통해 치유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놀라운 사례로 국제 사회에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평화교육의 핵심 대상자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에게 갖든 상처를 치유하고 이들이 평화를 건설하고 평화를 표현하는 구조적, 사회적, 문화적 평화 건설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민다나오 평화운동의 가장 큰 주안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가 민다나오를 방문할 경우, 단순히 불행의 현장을 방문하고 수직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민다나오에서 진행된 평화운동, 평화교육의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평화의 주체로 세워가고 있는 민다나오 청소년들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관계 맺는 깊이 있는 수평적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함께 하는 사람들

① Enigmata Creative Circle

Enigmata Creative Circle(이하 에니그마타)는 민다나오 카위권(Camiguin)섬의 음악가, 미술가, 행위 예술가, 작가 등 다양한 예술가 들이 모여 만든 예술 집단이다.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을 위해 다양한 인간의 품성을 하나로 엮고자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인간 내면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며 결국은 다양한 문화와 종을 자연 속에서 하나로 이어주고자하는 것이 에니그마타의 비전이다.

Waway, Ross, Kublai, Andrew Tatting, Dodo 등 출신 부족이나 종교적 배경이 서로 다르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 에니그마타를 결성하고 자연과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자연과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술, 문화 교류, 생태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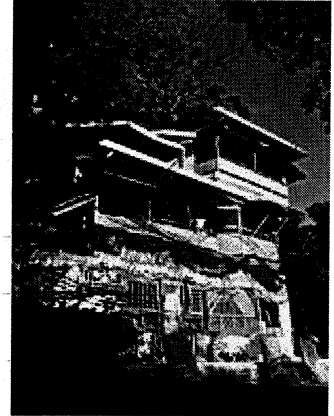
그룹의 리더인 Waway씨 마을의 경우 그들의 메인 슬로건이 "인간의 종다양성"이다. 생태계에 종 다양성이 필요하듯 인간에게도 종다양성이 필요하며, 사라질 위기에 놓인 소수 부족들이 자신들의 존엄과 존재를 지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시작하고 있고, 그 운동의 네트워크에 Waway의 마을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체험 학습의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방문지 섭외는 이 단체의 협력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들의 필리핀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행위 예술가 로스(Rosalie "Ross" Zerrudo)가 Treehouse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천해의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들어선 Treehouse는 이들 활동의 근거지이다. 이들 예술가 집단은 이번 체험 학습의 대미인 민다나오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예술적 감성을 끌어내어

주고 예술 활동을 통한 ‘ 창조적 평화’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Enigmata Treehouse

에니그마타는 Hostelworld.com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호스텔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이들 단체의 활동 근거지이다. Tarzan's Nest Resort(타잔 동지 리조트)라고도 알려진 이곳은 민다나오 카워권 섬의 뾰족한 밀림 사이에 음악가인 Ben Aicha가 지은 것으로 Enigmata Creative Circle 이라 불리는 민다나오 섬 예술가 그룹의 활동 거점이 되었다. Treehouse는 Talaandig 부족장이자 음악가, 미술가인 Waway Linsahay Saway(이하 와와이)가 이끌고 있으며 현재는 이번 우리 체험학습에 큰 도움을 준 Rosalie "Ross" Zerrudo(이하 로스)가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Treehouse

주요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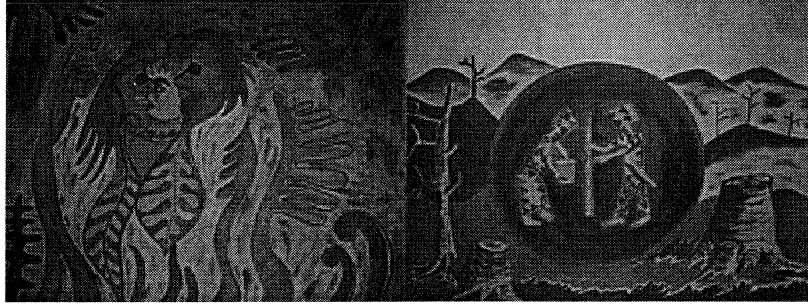
Rodelio "Waway" L. Saway

일명 Waway Saway 또는 Waway라고도 불린다. Talaandig 부족장이기도 하면서 음악가, 미술가로서 에니그마타의 리더이다. 에니그마타의 음악을 지휘하고 있으며 캔버스에 흙으로 그린 그림이 인상적이다.

Waway

- Waway씨의 다양한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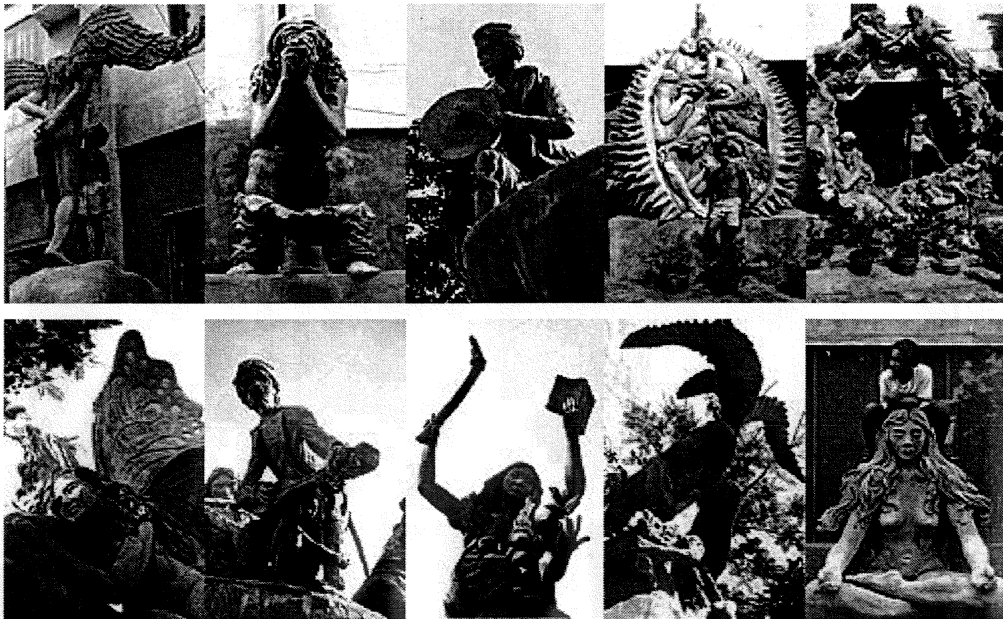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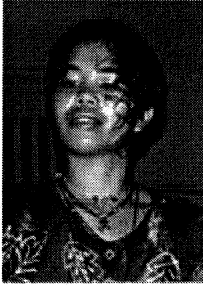
Rey Mudjahid "Kublai" P. Millan

Kublai라고도 불린다. 조각가이자 미술가로서 에니그마타의 예술 감독이다. 멀티 미디어 예술도 하고 있으며 사진작가, 시인이기도 하다. Cotabato City에서 태어나 필리핀 대학을 졸업 후 민다나오로 내려와 작업하고 있다. 에니그마타의 다양한 업서 작품은 Kublai의 만들었다. 그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조각들을 만든다. 그의 작품은 공항, 도시공원, 공공 놀이터, 산 유원지, 공공빌딩 앞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Ponce Suites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는 민다나오의 어떤 도시에서건

작품을 만들고, 자신의 작품으로 인해 민다나오에 많은 예술가들이 자극받고 자신의 사랑과 일을 더욱 열정적으로 추구하기를 바란다.

• Kublai씨의 다양한 작품들





Ma. Rosalie "Ross" A. Zerrudo

Ross라고도 불리우는 행위 예술가이다. 사라지지 않는 창작의 에너지로 시와 미술, 행위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Ross

- Ross의 다양한 작품들



② CRS(Catholic Relief Services)

지난 몇 십년간 필리핀에는 많은 발전적인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분쟁과 가난이다. CRS는 평화건설과 보건과 소액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와 NGO, 정부관리들의 협력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RS는 또한 혁신적인 천연자원관리 프로그램(FARMER)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땅, 물 등의 자원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 공동체,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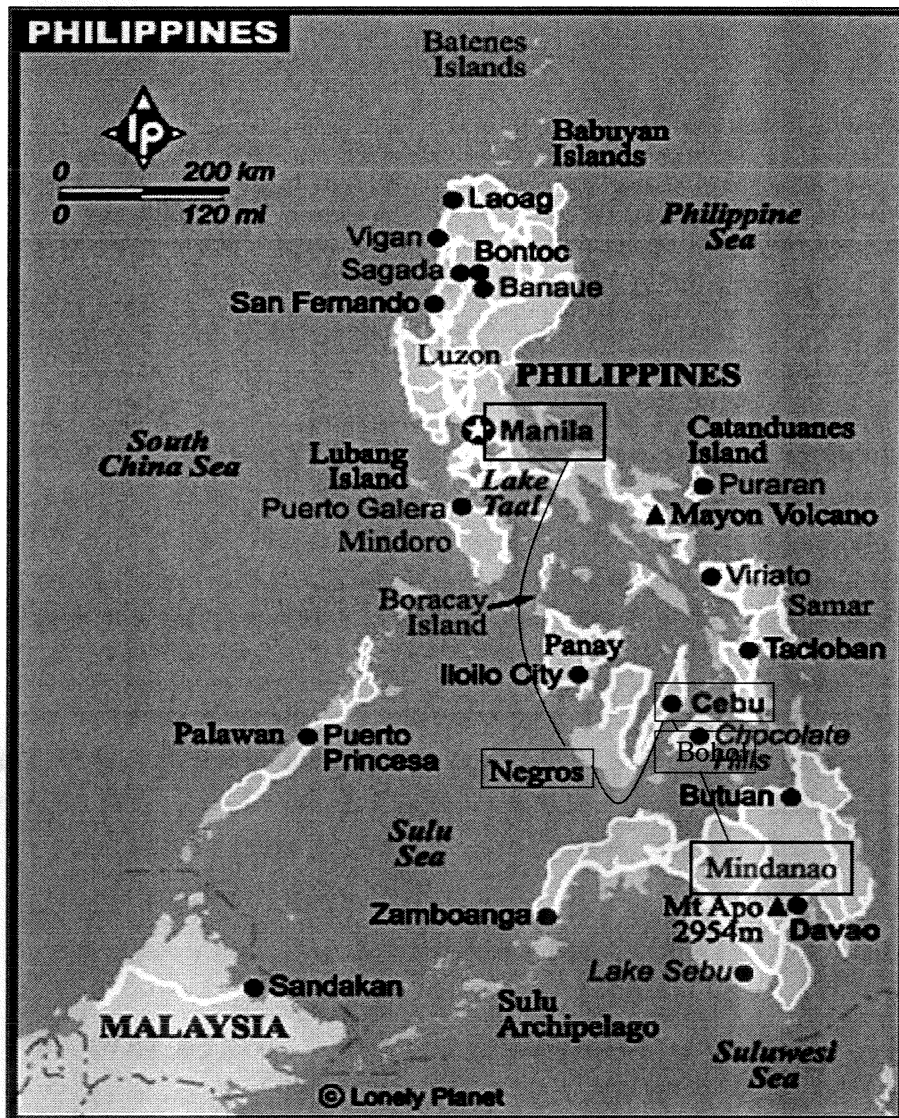
- 개인 사업발전을 위한 자금 빌려주기(90% 여성이었음)
- 공동체에 기반을 둔 건강 프로그램(외딴 지역의 위생시설 늘림, 식수 및 물 제공, 화장실 건설, 건강 보험사업)
- Maguindanao 지역의 평화와 조정을 위한 운동
- 응급지원 사업(2001년 태풍 피해자들을 위해 쌀 제공)
- 그 외 다양한 사업 진행 중

☑ CRS의 역사

1945년부터 시작된 CRS는 세계 2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재 평화와 조정, 보건, 농업 발전 등을 위해 일하는 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49명의 직원이 있으며 마닐라를 중심으로 세보, 다바오, 코타바토에 위치하고 있다.

4. 필리핀 소개

필리핀 지도



가. 필리핀 역사

(1) 필리핀 개관

필리핀은 아시아 대륙 남동쪽의 서태평양에 산재하는 7,000여 개의 섬들로 구성된 도서 국가로 면적은 30만 76km² (한반도의 1.3배)이고, 인구는 8.624만 명 (2004년)이다. 타이완 섬과 보르네오 섬, 셀레베스 섬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는 마닐라이며 정식명칭은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다. 주요 언어는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의 국토는 루손섬, 민다나오섬 등 필리핀 제도를 구성하는 7,107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개는 이름 없는 암초나 산호초이고, 사람이 정착하여 거주하는 섬은 약 880개 정도로 루손섬, 민다나오섬, 세부섬 등 주요 10개 섬이 전체 국토의 96%를 차지하며 그 외 민도로, 팔라완 섬, 바사얀 제도의 7개 섬이 있다. 중심지 역할을 하는 루손 제도가 있고, 세부, 보라카이등을 포함하는 바사얀제도, 그리고 민다나오와 술루제도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한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잦으며, 수많은 산지와 복잡한 해안선을 지형적 특색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열대 기후 지역에 위치하여 기온의 교차가 적으며, 강우가 기후 변화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농업 국가로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각지에서 벼농사 중심의 계단식 경작을 하기 때문에 특유의 농업 경관을 이룬다. 임업 또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써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목재 벌채가 성하나 최근에는 목재의 남벌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종래의 비주류를 이루던 석유는 1970년대 유전 탐사 결과 1979년부터 채유가 가능해졌다.

필리핀 인은 여러 차례의 이주를 거치면서 말레이 인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여러 부족들 사이에서는 100여 개에 이르는 언어 및 방언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부족 간의 교류가 거의 없었던 정착 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언어로는 말라야-폴리네시아 어파의 타갈로그, 일로코, 팜팡고, 비콜, 세부야노, 일리가이논(일롱고), 와라이와라이(사마르-레이테), 마긴다나오, 팡가시난 등의 9개 언어가 대표적이다. 1946년 독립 이후에는 타갈로그어를 기초로 한 필리핀어가 국어로 지정되었으며, 영어 또한 공용되고 있다.

에스파냐와 미국의 식민지 지배 이전까지는 여러 부족이 활거하는 상태였던 필리핀은 힌두, 이슬람, 중국 문화가 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았다. 14세기 이후 민다나오를 비롯해서 루손 섬에 이르기까지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하지만 16세기에 에스파냐가 정복해 들어오면서 이슬람 세력은 남부로 밀려나 그곳에서 독자적인 생활과 문화를 고수했으나, 현재는 총인구의 5% 정도만이 이슬람을 신봉할 뿐이다.

필리핀이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된 이후 중국인들이 상인, 기술자로서 대거 유입되면서 식민지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인들은 추방과 학살 등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정착하였으며, 이후 이들에게 귀화를 장려하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한편, 필리핀 인들은 식민지 지배와 포교 과정에서 에스파냐 인을 비롯한 미국 등 외국인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혼혈이 이루어졌다. 이들 혼혈을 메스티소라 하며, 부유한 상류층과 농민·근로자의 하류층으로 나뉘는 필리핀의 2계급 사회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우월한 특

한 계층을 구성한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희박한 종교인 가톨릭교가 필리핀에서는 총인구의 83%를 신자로 두고 있는 자국 내 초대 종교라는 사실은 지난 역사의 산물이다.

(2) 필리핀의 역사

(가) 스페인의 침략

16세기 유럽은 향료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포르투갈 탐험가인 마젤란은 향료를 찾아 세계여행을 떠날 것을 스페인 국왕에게 제안하고 허락을 맡은 마젤란은 1518년 드디어 세계여행을 출발한다. 1521년 3월 21일 필리핀 세부에 도착한 마젤란은 필리핀을 스페인 영토로 주장하고 각 부족장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지만 막탄섬의 부족장인 '라푸라푸'는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다. 1521년 4월 27일 마젤란은 라푸라푸를 죽이기 위하여 막탄섬을 침략하게 되나 부족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히 대항하는 라푸라푸와 그 부족에게 패배하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고 후퇴한다. 라푸라푸는 후퇴하는 마젤란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여 죽이지만 스페인의 침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43년 Villaobos에 도착한다. 이때 스페인 국왕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국명을 Felipinas라고 명명하고 1565년 11월 Legaspi가 보홀섬에 도착하여 Cegu에 최초의 스페인 항구를 건설하였다. 1571년에는 민다나오와 술루해를 제외한 필리핀 전부를 장악하게 되고 이때부터 스페인의 통치가 시작 되었다.

(나) 미국의 개입과 필리핀-미국 전쟁

19세기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던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민족주의 개념에 서서히 눈을 뜨게 된다. 1860년 스페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필리핀도 이에 맞춰 대 스페인 저항운동을 펼쳐 나가게 된다. 최초의 전투는 '카티푸난'이라는 독립 운동 단체가 스페인군 무기고를 습격하게 됨으로써 발생 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스페인군에게 참패하였다. 필리핀은 혁명에 성공하기 위하여 미국에 도움을 청하였다. 미국도 이를 승낙하여 필리핀을 도와주기로 약속 하였다. 꼭 필리핀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여서가 아니라 미국은 스페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898년 2월 25일 당시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쿠바가 독립혁명을 일으킴으로써 미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쿠바를 지원하러 갔으나 미국의 전황이 스페인군에 의하여 격침당해 260여명의 미군이 사망하여 미국의 스페인에 대한 감정은 적대적이었다. 미군은 바다에서 계속되는 승리를 이끌었으며 필리핀은 육지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스페인은 필리핀 몰래 미국에게 항복할 것을 밝히고 1898년 8월 13일 각본에 짜여진 전투를 치른 다음 항복하였다. 하지만 스페인은 미국에게 항복한 것이지 필리핀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었다. 1898년 6월 12일 필리핀의 아귀날도 장군은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898년 12월 10일 스페인과 미국은 파리에서 만나 '파리조약'에 서명을 했다. 미국은 스페인에게 필리핀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미화 2천만달러를 지불하였다. 스페인의 통치 시대가 끝나자마자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02년 까지 미국에 대한 저항운동이 계속 되었으나, 미국은 필리핀이 자체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면 필리핀을 떠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필리핀도 이를 수락하였다.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동안 필리핀에 많은 정치·경제·문화 면

에 큰 유산을 남겼으나, 필리핀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과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만과 학살도 서슴지 않는 식민지배의 전형적인 면을 보여준다. 미국의 필리핀 침략과 이 과정에서의 학살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미국의 필리핀 침략(1899~1902)¹⁾

미국과 스페인간 전쟁 초기에 홍콩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필리핀 혁명군 지도자인 아기날도는 미국측의 지원으로 귀국하였다. 그 후 혁명군을 재정비하였으며 공동의 적인 스페인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기 1898년 6월 12일 아기날도는 필리핀 독립을 선언하였고, 6월 23일에는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혁명 정부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독립을 요구하는 헌법을 준비케 하였다. 8월에 이 정부는 필리핀의 독립 인정을 여러 강대국들에게 청원하였다.

그 후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서기 1899년 1월 21일 아기날도는 공식적으로 말로로스 헌법을 승인하였으며, 1월 23일 필리핀 '제 1 공화국' 수립으로 아기날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수도를 마닐라 북쪽 근교인 말로로스라 정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위와 같이 성립한 필리핀 혁명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리핀과 전쟁 중이고 아기날도 정부와 몇 차례의 비공식적인 회담도 가진 바 있고 하여 그 정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필리핀 전 국민이 아기날도를 사실상 그들의 민족 지도자로 간주하여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심각한 것 이상이었다.

3년반 동안 진행된 미국의 필리핀 침략 전쟁에서 필리핀 측은 아기날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국 정부를 주축으로 전쟁을 수행하였고 미국은 아기날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한 끝에 1901년 3월 23일 그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체포된 아기날도는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모든 필리핀인들에게 미국의 지배권을 수락하라고 호소하였다. 결국 아기날도가 붙잡힘으로써 필리핀은 미군 당국에 복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 모두 잔인한 행각을 벌였지만 필리핀측의 잔인함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해를 달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그들의 제국주의적 의도를 기만한 채 '자비로운', 혹은 '이타주의적'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척했지만 필리핀측에서 보았을 때 미국은 자기들 명분에 대한 배신자일뿐만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합법적인 그들 열망에 대한 간섭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인들이 강조하는 미국의 잔악함의 예를 보자. 쿠바인들을 '살육했던' 윌러 장군의 기법이 필리핀에서도 자행되었다. 사마르 섬 지방 전투를 지휘했던 스미스 장군은 그의 병사들에게 "나는 포로를 원치 않는다. 죽이고 태워버려라! 더 많이 죽이고 태워버리는 것이 곧 내가 바라는 바이다."라고 명령하였다. 다른 지휘관들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맥아더 장군은 어떤 사람이 '왜 포로 숫자에 비해 그렇게 많은 필리핀인들이 사살되었느냐?'고 묻자 자신의 병사들이 '과녁 맞추기 연습'을 효과적으로 훈련했던 것이라고 응답했다. 통계에 따르면 2만여 명의 필리핀 병사들이 숨지고 25만여 명의 시민이 희생되었다(그러나 실제 사

1) 오늘날 필리핀의 정치·경제·문화에 끼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근대에 이루어진 미국에 의한 대량 학살은 필리핀 내에서도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평화를 찾아가는 우리 여행에서 잊혀진 과거를 알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미국의 필리핀 침략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필리핀 침략과 필리핀 지배에 숨겨진 동기는 「미국의 제국주의 :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권오신, 문학과지성사, 2000년)에서 인용하였다.

망자는 6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서기 1901년 5월 3일자 『뉴욕 타임즈』에서 벨 장군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루손 지역 전체 인구의 1/60이 죽어갔다고 했다. 아마도 필리핀을 정복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전술을 적절히 표현해본다면 그것은 '대량 학살' 그 자체였으리라.

미국의 필리핀 지배에 숨겨진 경제적 동기

미국인들이 식민지 지배에서 확립하려고 추구했던 목적은 결국 안정된 민정(民政)이 수립됨으로써 가능해졌으며, 나아가 1902년 7월 일명 쿠퍼법이라고 불리는 필리핀법이 통과됨으로써 필리핀 지배를 굳건히 하였다. 쿠퍼법은 미국 대통령에 의해 필리핀에 도입되었던 필리핀 위원단의 설립 인정, 민정 총독 사무소, 총독 부속 관리들 및 필리핀 대법원 등과 같은 모든 정치적 변화들을 인정하고 나아가 승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그 법에 의해 식민지 정부의 입법권을 필리핀 하원이 행사하게 하였다. 즉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필리핀 의회가 구성되며 그 의회는 입법부의 하원 기능을 수행케 하고, 필리핀 위원단으로 하여금 상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었다.

이런 정책은 상원에서 행한 로지 상원 의원의 연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우리는 필리핀에서 순수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성스러운 신뢰로 필리핀인들의 번영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미국인의 번영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 우리는 무역 팽창에 대해 믿고 있다” 라고 하였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정치적 업적과 조직들을 적용하여 필리핀을 아시아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민주 국가 근거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경제적 이익들을 챙길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해서 인도주의적 색채로 위장된 이기적인 경제적 효과가 결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 식민지 정책의 본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 2차 세계대전과 필리핀의 독립

1941년 필리핀에게 불행이 다시 한번 찾아왔다. 1941년 12월 8일 새벽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다는 뉴스가 퍼지고 난 몇 시간 후 일본의 폭격기가 필리핀 상공에 나타나 미군의 클라크 공군기지를 공습하고 파괴하였다. 극동주둔 미군 총사령관이었던 더 글라스 맥아더장군도 이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1942년 3월 17일 맥아더 장군은 호주로 철수하면서 “I shall return”이라는 말을 남겼다. 필리핀은 끝까지 일본에 대항하며 싸웠으나 기아와 부상에 지쳐 일본군에게 항복하게 된다.

1944년 10월 20일 미 해방군이 650척의 전함과 4개 사단의 병력으로 레이테에 상륙한다. 맥아더 장군은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켰다. 1945년 마닐라가 자유를 되찾았고 1945년 7월 5일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의 해방을 선포하였다.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은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된다.

(3) 필리핀 내전-민다나오 섬 모로 족의 분리주의 운동²⁾

²⁾ 체험 학습의 주제인 ‘평화’는 민다나오 프로그램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오랜 분쟁 속에서 피워온 민다나

필리핀의 많은 섬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섬이 민다나오이다. 민다나오는 원래 필리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이슬람교도들의 국가였다. 현재의 민다나오 섬 남부와 민다나오 섬 남쪽의 홀로 섬에는 술탄(이슬람 국가의 군주를 이르는 말)의 지배를 받았던 두 개의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16세기 중엽 에스파냐가 필리핀의 루손 섬을 정복하고 남부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민다나오도 에스파냐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민다나오의 이슬람교도는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고수하며, 오늘날까지 독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로 족의 분리 독립 운동은 왜 발생하였는가?

‘모로(영어로 무어 인)’라고 하는 호칭은 원래 유럽 남서부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이베리아 반도에 살았던 이슬람교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에스파냐인들이 필리핀의 이슬람교도를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교도와 동일하게 모로 족이라고 부르면서, 이 명칭은 필리핀 남부의 이슬람교도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로 족이라고 하는 호칭에는 이슬람교도를 멸시하는 뜻이 담겨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필리핀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을 모로 족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전통 문화인 모로 문화를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에스파냐가 필리핀에 진출할 당시, 모로 족은 루손 섬의 마닐라 등 중·북부에도 거주하였다. 그러나 에스파냐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남부의 민다나오 섬, 술루 제도 등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에스파냐는 16세기 말 이후 약 300년 간에 걸쳐서 남부 모로 족의 정복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 모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에스파냐와 모로 족과의 항쟁이라고만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거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분할 통치 방식을 통해 식민지를 경영하였는데, 에스파냐도 이곳에서 그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모로 족을 통치하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한 필리핀 군대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식민 정책의 결과로 필리핀의 여러 지역에서는 필리핀인과 모로 족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1898년 미국은 에스파냐 식민지인 쿠바와 필리핀의 독립 운동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쿠바와 필리핀 등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미국은 모로 족에 대한 동화 정책을 실시하여, 모로 족 거주지에 많은 비모로 족인 필리핀 인을 이주시켰다.

이와 같은 정책은 모로 족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우월 의식을 조장함과 동시에, 모로 족에 대한 차별을 심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식민 시대부터 가톨릭교도의 이주 정책은 계속되었고, 이는 소수 종파인 모로 족에 대해 심한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겨 주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모로 족은 필리핀에 대해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모로 족의 독립 운동

오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기 위해 민다나오 섬 모로족의 분리 투쟁 운동을 자세히 설명한다. 필리핀 내전의 내용은 『세계의 분쟁지역』(이정록·구동회, 푸른길, 2005년)에서 인용하였다.

미국이 통치하던 1930년대부터 모로 족 사이에는 필리핀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하자는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는 1950년대 이후 정부가 민다나오섬의 모로 족 거주지로 가톨릭교도인 필리핀 인들을 대량 이주시켰기 때문인데,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루손 섬의 토지 문제가 있었다.

필리핀은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중·북부에서는 식민지 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대토지 소유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공산주의 게릴라 조직인 후크 단의 세력이 점차 커져 갔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농지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대지주 계급이 지배하는 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와 같이 대지주제로 인한 루손 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을 민다나오섬으로 이주시킨 것이다.

그때까지 모로 족 사회에서는 공동체적 토지 소유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 인의 이주와 함께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도입되면서 모로 족과 이주자 사이에는 토지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모로 족의 독립 운동으로 비화되어, 1968년 민다나오 섬과 술루 제도에 거주하는 모로 족들이 분리 독립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슬람교를 믿는 모로 족과 가톨릭교를 믿는 이주민 무장 조직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고, 1971년 필리핀 정부군의 모로 족 학살을 계기로 분쟁은 모로 족과 필리핀 정부의 대결로 확대되었다. 모로 족은 모로 민족 해방 전선(MNLF)을 결성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로써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다.

이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난민의 일부는 말레이시아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MNLF를 지원함에 따라 내전은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다. 그리하여 1976년 남부 13주의 자치를 인정하는 트리폴리 협정이 성립되고, 1986년에는 사실상의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자치제의 실시에 대한 방법론적 이견으로 인하여 아직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와 또 다른 분열

모로 족의 반군 단체는 모로 민족 해방 전선(MNLF)과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MILF), 아부사야프(Abu Sayyaf, 신의 아들) 등이 대표적이면, 이들 단체가 중심이 되어 모로 족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92년 7월 라모스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MNLF 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반군들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1996년 9월 2일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라모스 대통령과 MNLF의 미주아리 의장은 내전을 종식시키고 민다나오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평화와 개발을 위한 필리핀 남부 지역 평의회(SPCPD)' 구성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SPCPD는 1999년까지 모로 족 거주지인 남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게 될 10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지역에 3년간 자치권을 부여한 후, 1999년에 국민 투표를 통해 이슬람 지역에 3년간 자치권을 부여한 후, 1999년에 국민 투표를 통해 이슬람 자치 정부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분리 독립을 주장해 온 MNLF로서는 많은 양보를 한 협정이다.

MNLF와의 평화 협상 타결에는 라모스 대통령의 적극적인 평화 공세가 큰 역할을 하였다. 라모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의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첩경이라 생각하고, 이슬람 반군, 공산 세력, 우익 세력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고심하였다.

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이슬람교도 지역을 SPCPD 관할 지역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SPCPD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약 1천만 명의 주민 중에서 이슬람 교도는 약 280만 명에 불과하며, 가톨릭교도는 두 배가 넘는 약 720만 명에 이른다. 그래서 다수의 가톨릭교도들은 SPCPD를 MNLF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결국 평화 협상이 체결된 이후, 가톨릭교도들은 남부의 최대 도시인 삼보양가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MNLF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무장 투쟁을 포기하고 일부 무장 세력들도 정부군에 편입되자, MNLF를 제외한 여타 강경파 모로 족 반군 세력인 MILF와 아부사야프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강경파 무장 단체인 아부사야프는 가톨릭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각종 테러 행위를 벌여 라모스 정권을 고민에 빠지게 하였다.

아부사야프와의 갈등과 불투명한 미래

1997년 6월 민다나오 섬에서 MILF와 정부군 간에 교전이 발생하여 3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하자, 그해 10월 양측은 정전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98년 2월 MILF가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정부군을 공격해 전투가 재개되었다. 1998년 6월에 출범한 에스타라다 정부는 미국 측에 연합 훈련을 요청함으로써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정부군의 강공으로 반군 세력도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게릴라 활동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단체는 활동 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자신들의 장악한 지역에서 '혁명 세금'을 징수하였다. 특히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부사야프 반군은 종종 외국인이나 민간인을 납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아부사야프를 비롯한 테러 단체의 축출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고, 경찰 활동을 위한 통신 및 추적 장비 등을 필리핀에 지원했다. 1999년 1월 아부사야프 반군의 지도자 잔잘라니가 정부군과의 교전과정에서 사망했지만, 반정부 활동은 지속시켰다.

2001년 1월 에스타라다 대통령이 부패와 횡령 혐의로 탄핵되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후임으로 아로요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아로요는 취임사에서 MILF와의 평화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이와 동시에 MILF의 범죄 혐의 기각 및 MILF에 대한 일방적 휴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24명의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MILF와는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반대로 아부사야프 반군의 납치 행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2001년 6월 아로요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이슬람 반군 단체인 아부사야프와의 협상을 포기하고 강공으로 선회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미군 1천 명과 공동으로 합동 훈련을 실시했고, 합동 훈련이 시작된 후 이에 밀린 아부사야프 반군은 그들의 본거지였던 바실란 섬을 빠져나갔다. 아부사야프는 미국인 인질을 납치하는 행위를 벌였고, 2002년 6월 아로요 대통령은 아부사야프 반군의 격퇴를 위해 본거지인 남부의 3개 섬(바실란 섬, 민다나오 섬, 홀로 섬)에 대해 총공세를 가했다. 반군 소탕 과정에서 지도자인 아부사야프가 교전중에 사망했다. 그는 지난 9.11 테러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

진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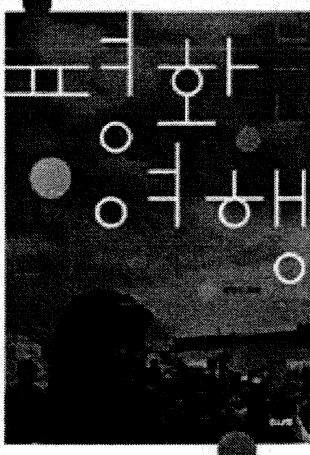
한편, 민다나오 섬의 최대 반군 단체인 MILF는 정부와의 평화 협상 진행중에도 간헐적으로 충돌을 일으켰다. 아로요 대통령이 MILF 측과의 평화 회담을 취소하고 강경 정책으로 대응하자, MILF는 2003년 7월 휴전 협정에 이어 2004년 4월 평화 협정에 합의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민다나오 섬을 포함한 남부 필리핀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가톨릭교도들의 반대보다는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MILF)과 아부 사야프 등 강경한 이슬람 반군 세력이 이슬람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투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읽어요!

당신은 평화를 믿나요? ·

임영신(평화 활동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북부 코타비토에 있는 분쟁의 땅, 피켓. 그곳은 1997년, 2000년, 2003년... 계속되는 전쟁으로 아직 상처조차 이물지 않은 땅입니다. 하지만 한국, 네팔,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라오스 등지의 평화활동가들이 이곳 피켓을 찾은 이유는 '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켓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평화를 배우기 위해서지요. 민다나오의 무슬림들이 정부군과 대치해 무장투쟁을 벌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1571~1898)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페인 정부는 식민통치의 두 가지 도구로 언어 말살과 개종을 강요했지요. 그리고 봉건제와 자주제로 몇몇 필리핀 사람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모두는 노예가 되는

사회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큰 섬인 루손을 지배하고 난 스페인은 두 번째 큰 섬인 민다나오를 지배하기 위해 먼저 아주민을 보냈습니다. 침략자의 속셈을 모르는 민다나오 주민들은 그들을 환대해 주었지요. 땅을 나누어 주고, 환영 행진까지 벌였으니까요. 그러나 스페인에게 민다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을 뿐입니다. 수많은 지하지원들, 최대의 바나나와 피인애플, 허브 농장이 민다나오에 있었으니까요.

주민의 다다수가 무슬람이었던 민다나오가 스페인의 가톨릭 개종정책과 착취에 맞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것이 길고 힘든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8년 스페인은 미국에게 전쟁에서 진 대가로 필리핀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902년에 토지 등록법을 만들어 소수의 가톨릭 지주들이 무슬람에게 빼앗은 땅을 합법화 하도록 도왔고, 자주제와 봉건제를 그때

로 유지했습니다(1898-1946). 다시 일본의 점령(1942-1945)을 지나 필리핀은 독립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마르코스의 시절이 왔습니다.

무엇이 낮고 무엇이 더 나쁜지조차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길고 오랜 수탈이 계속되었습니다. 만다나오 사람들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국민에 의한 수탈과 학살이었습니다.

1972년 계엄령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법정에서조차도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만다나오 독립을 요구하며 법 대신 무기를 들고, 마을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갔지요. 1972년부터 1976년 사이 정부군과 치른 지독한 전쟁 뒤로 서로에 대한 비방과 증오는 견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무슬림들은 가톨릭 사람들이 정부군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톨릭 사람들은 무슬림이 반군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무장투쟁기간 동안 무슬림과 가톨릭의 아이들은 서로가 원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너의 노예들이며, 죽어도 좋은 쓰레기들이다 라고. 1972년 이래로 지금까지 수차례 전쟁과 학살로 12만 명의 만다나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바오에서 네 시간 가까이 내륙을 향해 달려 도착한 우리를 맞아 준 것은 착한 얼굴로 웃는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평화 건설자' 토토와 아드레나알도 있었습니다.

2004년 5월부터 피킷에 있는 42개의 바랑가이(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가운데 7개의 바랑가이가 '평화와 아이들을 위한 평화지대'임을 선언했습니다. 토토와 아드레나알은 주민들과 함께 그 평화의 공간 속에서 지속적인 협상, 정책 개발, 평화교육, 전쟁상처 치유, 수입증대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정부와 평화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 피킷 사람들은 오히려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협상과 동시에 군을 투입해 전쟁을 야기한 정부의 기만으로 만다나오에서는 평화를 위한 대화, 혹은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기만의 상징이 되어버렸지요. 그런 피킷에서 어떻게 이런 평화를 위한 몸짓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걸까요.

마을회관 같은 평화센터의 벽은 빈틈이 안 보일 만큼 온갖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평화지대 선언에 참여한 일곱 바랑가이를 예쁘게 색깔해 놓은 피킷의 지도, 피킷에서 만들어진 평화노래, 함께 만든 평화지대 선언문, 아이들과 함께 했던 평화 카라반 보건위생 활동, 수입증대 활동, 수백 개의 종교간 대화 워크숍, 평화로운 말하기 훈련, 여러 평화교육 시진들, 보도된 기사들... 힘들지만 즐거웠을 지난 2년간의 여정이 고스란히 스며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던 아드레나알은 천천히 그녀의 이야기를, 피킷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로민족해방전선(MNF 만다나오 독립주의자들)의 한 군인은 전투 중 한 가톨릭 마을에 들어가 그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군인과 직접 만나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잔인한 일을 했느냐고 그는 말했지요. 누가 잔인한지는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그가 두 살이었을 때 자기 앞에서 임신한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살해 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은 그의 평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고, 암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군인이 되었고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수백 배의 크기로 되갚아준 것이지요.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들을 모두 죽인 거죠.

그러나 지금 그때 그에 의해 가족을 잃은 누군가는 또 다른 복수를 꿈꿔 자라고 있을 거예요. 전쟁은 자랐습니다. 그러

나 전쟁의 상처는 우리 속에 터지지 않은 폭탄처럼 내장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이 죽은 수만 명의 죽음이라는 열매를 낳는 신술을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증오의 탓에 갈라진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전쟁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모두가 죽을 때까지 죽고 죽이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전쟁의 끝이라는 것도...

그 깨달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평화시대 선언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죽이게 될 거예요.

마을 분들이 준비해 주신 바나나 잎사귀 쟁반에 담긴 맛난 점심을 먹고 우린 만다나오 평화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들이 일구어 놓은 소중한 결실들에 대해 말해서 찾아와 귀 기울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 띤 얼굴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이 우리를 위한 여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지요.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이 지난 2년간 일구어 온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기 위해 말해서 온 손님을 보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을.

점심을 먹고 우리는 이번엔 토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97년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다시 전쟁이 터졌지요. 파란을 가고 다시 돌아가고 또 복구를 하고... 채 복구도 끝나기 전 우리는 또다시 2008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구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해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쟁으로 잃은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였습니다. 전쟁 전에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물론 결혼을 하기도 했던 가톨릭과 무슬림 주민들이 세 번의 전쟁을 겪으며 깊이 갈라지고 분열되어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정부군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무슬람에 대한 장담하지 않은 대우와 땅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슬림 주민들도 가톨릭 주민들도 이 일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켓에서 우리는 우리를 희생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느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린 모두는 평화 건설자들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력을 무력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전쟁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가족을, 농사지을 땅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의 전쟁과 무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랑가이를 찾아다니며 평화의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들판에서, 마을회관에서, 모스크에서,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수백 수천 번의 대화를 통해 '피켓' 민중들에 의한 G7 평화지역 선언은 탄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계 맺는다는 것은 전쟁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을 마음 깊숙한 곳의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관계 맺는 것은 저항한다는 것이다.

센터에서의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는 서로 두근거리는 눈빛으로 그밤 우리를 초대해 준 미어 어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두명 이름이 호명되면 그 검고 환한 미소를 찾아가 손을 잡고 오토바이를 타고 자마디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떠나가는 우리를 향해 아드레나얌이 말했습니다.

가서 진짜 역사를 들으세요.

제가 묵었던 그 집은 깔끔하고 단출 했습니다.

장작불을 피워 밥을 지어 차려 주시던 저녁, 씻으라고 펌프에서 길어다 놓으신 양동이의 물들, 한국의 70년대 시골 같아 마음이 편안하기도 했지만 사실 멀리 떨어진 진흙 밭을 건너 가야하는 컴컴한 화장실도, 씻지도 못하고 잠들어야 하는 무더운 밤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팔라판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두런 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쟁에 이야기가 가닿았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한 번도 고단한 표정을 보인 적 없는 어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여셨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10년간만 12번이나 피난을 가야 했다 합니다.

그제야 집 안에 너무로 잔 평상 와에는 가구라 할 만한 것은 하나도 놓여있지 않았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전쟁이 나면 옷가지 몇 개만 담아 피난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단출한 실림살이. 그것이 가난 때문인 줄 알았으나 전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농사짓는 아가 땅을 들고 피난할 수는 없어, 난민센터에 피난 나와 있던 시절에는 하루 몇 시간을 걸어 두고 온 논밭에 가서 농사일을 하고 폭격과 총성을 들으며 돌아오기도 했다는 고단한 시절.. 그러나 그녀의 고단한 삶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닌 듯합니다.

딸의 방에 제 이부자리를 봐주고 11시가 넘어 잠자리에 든 그녀는 날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바나나를 튀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팔아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지요. 지는 시간은 하루 서너 시간 그럼에도 벗어날 길은 막막한 가난.

다음날 아침, 저는 그녀가 새벽에 일어나 튀겼을 바나나를 먹고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파켓에 머무르는 며칠 동안 우리는 코피토의 평화학교 평화교육을 하는 유치원 청소년 센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을 만나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만들어 가는 평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여정이 끝난 날 다른 여정에 올랐던 팀과 함께 우리는 다시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G7 바탕기이 대표들을 통해 공동체의 이야기를 앞으로 나아갈 여정에 대한 계획과 비전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목소리로 들었지요. 하나같이 모두 검게 그을린 얼굴의 농부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 주었던 올손은 우리에게 감사장을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마디의 이름을 그리고 감사의 말을 적어 초대해 주었던 가족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가 자신이 적은 감사의 메시지를 읽고 그 가족을 앞으로 모셔 한 장 한 장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서른 가족 모두가 그렇게 앞으로 모셔졌지만 그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가슴속에서부터 갈어 올린 감사의 말들이 그분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

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어른들과의 모든 인사를 끝내고 다시 자디의 먼 길을 떠난 그 체육관에서 저는 아드레나알에게 물었습니다.

왜 평화를 위해 일하나요?

난 피켓에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나도 트라우마로 고통받았던 사람이란 거죠. 그러나 다바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NGO에서 일하며 내 기억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내 증오와 불신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잡에서도 증오만 배우고 자란 내가 용서하는 법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대화하는 법을 훈련받으며 치유된 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돌아왔어요. 여기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전쟁이 오는 건 우리가 무슬람이거나 기틀락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어요. 정부와 다국적 자본이 우리를 쫓아내고 댐을 짓고 우리의 땅과 자원을 빼앗아 가려고 증오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는 것으로는 이 전쟁과 수탈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지요. 때문에 전쟁이 또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지역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평화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린 평화를 믿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곁에 한국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는 소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있는 소녀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드레나알, 피켓의 십대 소녀들, 그리고 저.

만다나오를 떠나오던 비행기 안 제 카메라에 담긴 피켓에서의 그 마지막 사진을 들여다보며 저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 때 그 체육관에서 제가 미처 듣지 못한 마지막 말이 있었다는 것을.. 사진 속의 아드레나알이 제게 소리없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믿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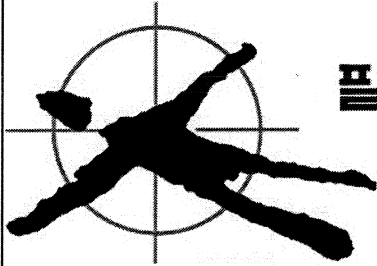
나. 필리핀의 정치

독립 후 필리핀 정치는 미국 정치형태를 모방한 1935년 헌법을 기초로 삼권분립, 보수양당제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자유당, 국민당의 2대 정당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는 미국형 민주주의가 유지되었다. 1950년대 초까지 경제위기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일게릴라 조직을 모태로 한 후크단의 반란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였으나 1953년 R. 막사이사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안정기로 접어들었다. 이후 C.P 가르시아와 D.마카파갈의 정권을 거쳐 1965년 F.E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었다. 마르코스는 경제개발을 목표로 내세워 외자도입, 공업화, 농업개발, 토지개혁 등을 추진하여 1969년 이 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 재선되었다. 이후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1972년 9월 계엄령을 선포, 3선금지규정을 폐지하는 등 장기집권을 시도하였다. 1973년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고 [새로운 사회] 라는 강령 아래 군부의 정치적, 경제적 진출이 확대되었다. 1976년 전국 13개 지방대표를 뽑아 입법자문회의를 소집, 잠정국민의회 규정을 수정하였다. 1978년 4월에는 공선의원, 직능대표, 임명의원 등 200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행기관인 잠정국민의회가 발족되었으며 이와 함께 마르코스는 대통령 겸 총리에 취임함으로써 형식상 의원내각제 체제를 갖추고 족벌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독재정치의 모순과 부패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83년 8월 B.S. 아키노 전 상원의원 피살에 군부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으로 반정부운동이 증폭되었다. 이 밖에 국제적인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경제적 위기에까지 몰리자 마르코스는 타개책으로 대통령 조기선거를 실시하였다. 1986년 앞당겨 실시된 선거에서 마르코스는 반대파 정,부통령 후보인 C. 아키노의 미망인 및 S. 라우렐 전 상원의원과 경쟁하였다. 선거 결과 마르코스가 승리하였으나 야당 측은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아키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였다. 곧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의 저항과 함께 엔릴레 국방장관과 F.라모스 군참모총장서리가 군부혁명을 일으켜 아키노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1987년 2월 임기 6년, 중임불가를 원칙으로 한 대통령중심제의 신 헌법을 발효하였다. 그러나 8월 이래 5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며 1989년 12월 아키노 집권 이래 최대 규모의 군부 반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라모스 국방장관이 당선되었다. 이후 필리핀 의회는 공산 게릴라 및 회교도 분리주의자들의 사면과 불법화된 필리핀공산당의 합법화 조치를 승인하였다. 1997년 6월 에스트라다 부통령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자신이 이끌던 필리핀 대중당과 민족주의국민연합, 필리핀민주투쟁 등 2개 야당을 통합해 민족주의자대중투쟁단을 창당했다. 1998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2001년 1월 부패 의혹 속에 시민혁명으로 실각되었다. 2001년 1월 20일 G. 아로요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현재 입법부는 양원제를 채용하여 하원은 204명이 직선으로 선출되며 토착 소수민족대표로 최대 46명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고 임기 3년이다. 상원은 24명으로 임기 6년, 그 절반이 3년마다 개선된다. 주요 정당으로는 라크스당, 대중혁명당, 자유당, 신사회운동당 등이 있다. 독립 후 1960년대까지 친미외교노선으로 일관하여 1966년 월남파병, 아시아태평양이사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가입하였다.

알고 있나요?

현대 필리핀 문제 집중 조명!

Stop the Killings - 살해를 멈춰라



필리핀 민중에대한 폭력과 살해를 멈춰라

Stop the Killings in the Philippines



Stop the Killings 2호

◆살해를 멈춰라!

경계를 너머,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아시아의 친구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재한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직인 카사마코가 함께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살해를 알리고 이를 멈추기 위해 이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1. 필리핀 군부의 정치살해 관여를 입증한 두 보고서

필리핀 정치살해에 관한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인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씨의 보고서와 아로요 대통령의 지시로 정치살해를 조사하기 위해 고성된 멜로위원회(Mello Comission) 보고서가 모두 필리핀 군부가 정치살해에 관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제출된 필립 알스턴 보고서는, 필리핀 군이 내부적으로 'Orders of Battle(전투대상자)'이란 문서를 작성하고,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정치살해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군부가 정치살해에 개입하고 있으며 군부가 즉각 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발표된 멜로위원회 보고서는 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에도 명백하게 군부의 개입을 지적하고 있다. 멜로위원회 보고서 5페이지에 '명백한 사실(Undisputed Facts)'에 따르면 " 군부가 정치살해의 증가원인을 공산반군에 대한 숙청에 돌림으로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The military establishment itself acknowledges this, by attributing the rise in killings to a 'purge' of ranks by the CPP-NPA)." 고 기술하고 있다.

필리핀 국내외에서 발표된 두 보고서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필리핀 군부가 정치살해에 개입 되어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필리핀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 필리핀 총선의 전후

총선을 앞두고 정치살해 및 실종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다. 언론인과 농민지도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희생자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의 선거운동원, 출마자들에 대한 살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선거시기마다 각종 폭력과 살인이 있어왔던 것이 필리핀의 정치문화지만 이번 총선은 필리핀 군부와 아로요 정권이 진보정당을 목표로 하여 일련의 정치살해를 진행시켜왔다는 증거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살해의 가장 큰 배후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퇴역장군 팔파란(Palparan)이 여당 연합의 하나인 Bantay 정당의 비례대표 1순위로 나선 것은 아로요 정부와 군부의 밀착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필리핀 GMANews에 따르면, 학살자라 불리며 필리핀 군부가 정치살해를 자행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팔파란을 당선시키기 위해 군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고, 군부가 선거과정에 영향력을 미치자 진보정당들이 대법원에 요청하여 군부가 수도권 마닐라지역에서 철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5월 14일 총선에 앞서 벌어진 부재자 투표에서 군인들은 사실상 공개투표를 통해 집권여당에게 표를 던질 것을 강요 받았으며, 1인당 200페소씩을 뿌리며 집권여당은 금권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을 매수하였다. 대규모 부정선거 속에서 사실상 집권여당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베릴린(Berlin) 목사가 지난 5월 27일 군부에 의해 불법 체포 당하여 고문 당하는 등, 정치살해와 고문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극심한 부정선거의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퇴역장성들이 대규모로 출마하여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군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3. 필리핀 군부에 차량을 지원한 한국정부

필리핀 방송국 ABS-CBN은 지난 4월 11일 퀘손시의 아기날도 캠프에서 주한 필리핀 홍종기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 경축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하였다. 홍종기 대사는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번 차량지원이 양국간의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고 한국정부는 덤프트럭 134대와 불도저 7대를 이날 행사를 통해 필리핀 군부에 전달하였다.

필리핀 정치살해를 중단하기 위한 연대모임은 정치살해의 배후로 공인 받고 있는 필리핀 군부에 차량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지난 4월 17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고 5월 4일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국방부는 지원한 장비가 노후한 장비이며, 필리핀 군부의 공식요청에 따라 수송비용을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문제는 이번 지원배경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필리핀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의 이면에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정책 속에서 양국의 군사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 방산물자의 필리핀 수출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군부가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조차 부시 행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지원이 정치살해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는 필리핀 군부와의 협력을 삼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살해를 멈춰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끔찍한 살해를 멈춰주세요

<http://www.pinoyhr.net/> 이 곳에 들어가시면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에서 미처 못 다룬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을 위한 블로그

<http://blog.naver.com/stopkillings>

다. 필리핀의 문화

필리핀은 오래 동안 식민통치의 영향을 받아 서양문화와 동양문화가 모두 섞여있어 필리핀만의 전통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딱히 없다. 대신 여러 부족들의 문화를 소수가 지켜나가고 있다고 한다.

(1) 종교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 천주교가 국교로 되어 있고 로마 카톨릭 83%, 개신교 9%, 회교 5%, 불교 및 기타 3%의 비율이다. 역사적으로 필리핀 국민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세계의 두 거대 종교를 받아들였다. 이슬람은 아랍의 상인과 모험가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직후인 14세기에 전파되었으며 현재는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카톨릭은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도착과 함께 16세기에 전파되었다. 개신교는 1899년 미군의 주둔과 함께 장로교 및 감리교 전도사들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20세기 초 독립적인 두개의 교단이 조직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 언어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주요한 것만도 7가지나 된다. 정부에서는 마닐라지역에서 쓰이는 따갈로그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공용 필리핀어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영어를 주로 사용하며 스페인어도 일부 계층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3) 기후

필리핀은 일년 내내 무덥고 습기가 많은 기후를 나타내는데, 전군도를 거쳐 복합적인 기후를 나타내나 일반적으로 11월부터 5월 초순까지의 건기와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의 우기로 나뉜다. 평균기온은 26~27℃이며, 5월은 기온이 40℃까지 올라간다. 3월과 5월 사이는 섭씨 22도에서 35도를 오르내리는 덥고 메마른 날씨이며 6월 중순과 10월 사이에는 비가 많이 온다. 11월과 2월 사이는 섭씨 22도에서 28도로 선선한 날씨이다.

(4) 생활

- 필리피노 타임 : 한국에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이 있지만 필리핀에도 유사한 개념의 필리피노 타임이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처럼 약속시간에 늦는 필리핀 특유의 생활 습관을 일컫는 말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더운 날씨와 열대 기후 특유의 느긋한 기질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급한 것이 없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있고 당연히 되다 보니 약속시간에 늦는 것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 휴일

- 01.01 : 설날
- 04.09 : 성목요일 (예수승천일)
- 04.10 : 성금요일 (예수수난일)
- 05.01 : 노동절
- 06.12 : 독립기념일
- 11.01 : 만성절

- 11.30 : 국민 영웅의 날
- 12.25 : 크리스마스
- 12.30 : 리잘 기념일

• 교통

①트라이시클 → 25p / 500W

- 멈추어야 할 때 - 파라포 ! (stop)

②택시 기본요금 → 30p / 600W

- 미터제이며 시내에서의 이동은 택시가 가장 보편적이다.

③지프니 → 7.5p / 150W

- 지정된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멈추고 출발하기에 교통체증의 주범이기도 하고 오래된 엔진 덕에 뿌옇게 내뿜는 매연 또한 환경파괴의 주범이기도 하고 지프니 안에서 강도나 소매치기를 당할 정도로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서민들의 발을 담당하기에 아직까지 지프니는 필리핀을 달리고 있다. 지프니를 타면 양쪽에서 마주보며 일렬로 앉아있고 평균 승객 수는 20명 ~ 40명 정도이다. 지프니는 좋은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모두 똑같은 우리나라 버스와는 달리 제각각 개인적으로 페인팅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 화려하게 장식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필리핀 사람들의 손재주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늦은 시간에 혼자 타지만 앉는다면 꼭 한번 이용해 볼 만한 교통수단이다.

- 돈을 낼 때: 바야드

- 내릴 때: (큰 소리로) 살루갈 !

• 음식물가

한국라면(1봉지) → 약40p / 800W

현지팔빙수(Halo halo) → 45p / 1,100원W

말린망고(200g) → 100p / 2,000W

망고 (1개) → 20p / 400W (계절에 따라 다름)

망고스틴 (1kg) → 100p / 2,000W

만다린(1kg) → 40~70p / 800~1,400W

바나나 (한 뭉치 대략 20개) → 70p~100p / 1,400~2,000W

람부탄 (1kg) → 80~100p / 1,600~2,000W

두리안 (1송이) → 400~700p / 8,000~14,000W

파인애플 (1송이) → 40p / 800W

• 공책 및 필기도구 등은 한국에서 충분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아요 ! (싸지 않아요)

(5) 음식문화

①주식, 식사

필리핀 음식문화도 중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동, 서양 음식문

화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은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음식 재료의 종류와 조리 방법의 다양함에 있어서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천 (Lechon 돼지구이), 롬피아 (Lumpia 롤빵), 팬싯 (Pansit 우동) 등의 대중적인 음식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쌀이 주식을 이루고 있으며, '가타'라 불리는 코코넛 우유를 음식의 주재료로 사용한다. 필리핀 음식은 야채보다도 육류와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대부분이며 그 중 생선요리와 닭 요리가 많다. 가장 식탁에 많이 오르는 음식은 닭고기이며, 밥과 닭고기가 거의 주식에 가깝다. 간식으로 바나나를 많이 먹는다.

필리핀은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해산물이 풍부해 식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많은 식당들이 각각 다른 조리법을 이용한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해산물 요리를 자랑하고 있을 정도이다. 해산물을 이용한 전통 요리들은 보르네오 섬에서 건너온 초기 개척자들, 말레이 족의 음식 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필리핀 요리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다.

생선, 가재, 새우, 게, 굴 등을 이용한 해산물 요리는 대부분 튀기거나 구워서 다양한 소스와 함께 먹는다. 붉은 색의 라푸라푸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생선이며, 다바오 지방의 구운 참치머리 요리 (이니호 나팡가)도 유명하다. 필리핀에는 다양한 요리가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즐겨 만들어 먹는 필리핀 음식은 대개 기름지며 조리법이 간단하다. 예를 들어 생선을 튀긴다고 할 때에는 마치 통닭을 튀기는 것처럼 다량의 식용유를 둥근 팬에 가열한 다음 생선을 통째로 빠뜨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에서 한국인들이 음식을 먹기 힘든 이유는 음식에 사용하는 향신료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필리핀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가끔 너무 신맛이 나는 음식에 놀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튀긴 음식이 많아 느끼한 맛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편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보통 한두 가지 반찬을 가지고 밥을 먹는 일식 일찬이고 부자일수록 반찬가지수가 많아진다. 전통적으로 식사는 손으로 밥을 집어 먹는데, 비위생적이기긴 하지만 손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면 입맛을 돋군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빈민가 등을 제외하고 일반 가정집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아침은 달걀 후라이와 빵 그리고 커피로, 점심은 햄버거나 스파게티 등의 패스트푸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맥도날드도 있지만 필리핀 자체상표인 '졸리비'라는 패스트푸드점은 맛이나 체인점 수에서도 맥도날드를 능가한다. 어디를 가나 국민 패스트푸드점인 'JOLLIBEE'가 없는 동네는 없을 정도다.

<필리핀에서 먹어 봐야 할 유명 요리>

- 육류와 야채의 절묘한 조합 - 아도보
- 새콤한 향으로 한 입에 식욕을 돋구는 - 시니강
- 통돼지 바베큐의 원조 감칠맛 나는 소스와 즐기는 - 레천
- 뼈 속까지 녹이는 부드러운 맛 - 불랄로
- 엘로우 비빔국수를 스파게티로 - 판싯
- 필리핀 자체상표인 국민 패스트푸드 점포 - 졸리비 (꼭 한번쯤 가봐야 한다.)

② 과일

- 바나나 :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바나나. 바나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바나나와 그린바나나, 시노리타 (우리나라에서는 몽키 바나나라고..), 요리용바나나 등

이다. 그린바나나가 맛이 부드럽고 달며 시뇨리타는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리용바나나는 튀겨먹거나 찌서 먹어야지 절대로 날로 먹어서는 안 된다. 요리를 한 바나나는 간단한 간식으로 그만이라고.

· 코코넛 :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자수라고 부르는 나무의 열매로 윗부분을 잘라서 빨대를 꽂아 과즙을 마신다.

· 칼라만시 : 우리나라의 금귤처럼 생긴 초록색의 과일. 신맛을 내기 때문에 식초나 레몬 대용으로도 쓴다. 칼라만시 원액을 물과 함께 섞은 주스는 정말 맛있다.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는 약처럼 마시기도 한다.

· 두리안 : 과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처음 먹는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역겨울 수도 있고 또 하나에 400~700 페소정도로 비싼 과일이다. 하지만 자꾸 먹다 보면 중독성이 생겨 이 과일의 맛을 알면 이것을 먹기 위해서 필리핀을 다시 찾을 정도라고 한다. 반으로 자르면 노란색 살이 나온다.

· 잭 푸르트 : 필리핀 가정집이나 야외로 나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먹을 때 끈적임이 조금 있지만 두리안처럼 먹을 때 거부감이 없고 달짝지근하다. 망고처럼 너무 달지도 않아서 먹기가 좋다.

· 망고 : 필리핀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로 껍질은 노란색이며 반으로 잘라서 안의 씨만 빼고 먹는다.

· 람부탄 : 둥글며 표면에 털이 나 있는 붉은색의 과일. 껍질을 벗겨내면 노르스름하고 반투명의 과육이 나온다. 매우 달고 맛있으나 제철에만 맛볼 수 있다. (제철은 8월~10월)

라. 필리핀의 경제

필리핀은 전형적인 농업국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제1차 산업, 특히 농업에 종사하며, 이러한 점에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하다.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각지에서 계단경작을 하고 있어 필리핀 특유의 경관을 이룬다. 필리핀은 전형적인 농업국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제1차 산업, 특히 농업에 종사하며, 이러한 점에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하다.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각지에서 계단경작을 하고 있어 필리핀 특유의 경관을 이룬다. 그 밖에도 옥수수과 같은 잡곡과 감자 등의 재배도 활발하며 특산물로서는 마닐라삼이 있다. 임업도 매우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민다나오섬을 중심으로 나왕 목재의 벌채가 성하다. 최근에는 나무의 남벌로 임산자원의 고갈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국내에 합판 공장이 대량 건설되어 목재수출의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동광, 철광을 비롯하여 금, 크롬, 망간, 니켈 등이 주요 광물로 꼽힌다. 종래에 빈약하였던 석유는 1970년대부터 활발해진 유전 탐사 결과 1979년부터 채유가 시작되었다. 수산자원도 풍부한 편이지만 미개발 부분이 많다. 1950년대 수입환관리와 폐소화가치의 상승이라는 유리한 조건과 더불어 생산재수입, 금융, 세제면의 우대 조치가 실시되어 공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및 노동력 인구의 구성이 농업으로부터 공업으로 급속한 전환을 보였고, 각종 경공업 분야에서도 자급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60년을 전후하여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하고 환수입이 자유화된 데다 폐소 가치가 절하됨에 따라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형, 처에 의존하는 농업구조와 도시, 농촌 간의 격차, 소득계층에 따른 심한 불균형, 지나치게 비대해진 재벌의 존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필리핀의 화폐와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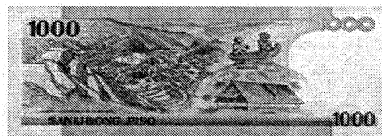
화폐단위는 페소(Peso)이며 1페소는 100센타보이다. 은행권으로는 1,000 페소, 500 페소, 100 페소, 50 페소, 20 페소, 10 페소, 5 페소짜리가 있다. 동전은 1 센타보, 5 센타보, 25 센타보,

1페소	20원
100페소	2,000원
US 1\$	49P (환율이 자주 바뀜)

50 센타보, 1 페소, 2 페소, 5 페소가 있다. 센타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며 대중 교통 이용이나 일상생활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단위는 20, 50, 100, 500페소이다. 1 페소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3원이다.(2007년 8월 3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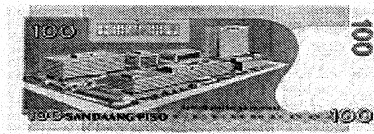
1000 페소 = 한화 약 20,000원



500 페소 = 한화 약 10,000원



100 페소 = 한화 약 2000원



50 페소 = 한화 약 1000원



20 페소 = 한화 약 400원

마. 여행시 주의사항

필리핀을 여행하시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미국식 사고방식과 미국식 스타일에 맞춰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치안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는 필리핀을 여행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이다.

①식수

필리핀은 화산지대인데다가 대리석이 많이 생산이 되는 관계로 물에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은 생수를 마시도록 해야 한다.

②에어컨

더운 나라이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므로 저녁에 에어컨 온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감기를 예방할 수가 있다 .

③ 환전

필리핀에는 시내 어디를 가나 사설 환전소가 많이 있고, 이들은 높은 환율을 제시하여 관광객들을 유혹을 한다. 그러나 환전은 호텔이나 공항에서 하는게 가장 안전하다. 실제로 수천불 이상을 환전을 할게 아니라면 그다지 환률에서도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④ 질병

덴기열, 일본뇌염, 사상충(필라리아증) 등이 주의해야할 질병이다.

- 덴기열은 덴기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다. 필리핀의 우기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유행하며 이 기간에 바이러스를 지닌 덴기모기한테 물리고 4일 내지 10일이 경과한 뒤에 갑자기 열이 39.5도까지 올라가고,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 깊숙한 곳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통상 4~7일간 심하게 열이 나다가 잠시 열이 내리면서 온몸에 발진이 생기면서 심하게 가렵다. 증상으로 봐서 그냥 몸살감기가 아닌 것 같으면 병원을 찾도록 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모기에 안 물리도록 해야 하는데, 덴기모기는 낮부터 저녁때까지 주로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에 활동을 한다. 같은 집안에 누군가 덴기열에 걸렸다고 하면 즉시 온 집안에 모기약을 뿌려서 모기를 잡도록 해야 하며, 덴기열에 걸린 사람의 피를 뺀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게 되면 그 사람도 덴기열에 걸릴 확률이 높다.
- 일본뇌염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지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소아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⑤ 치안관련

- 택시 : 필리핀에서 택시를 타는 것은 이곳의 사정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면 주의를 하여야 한다. 첫째, 택시를 타기 전에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 탑승을 하되 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으면 미터기를 켤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래도 미터기를 켜지 않고 가격을 흥정하려고 한다면 다른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터기를 켜지 않는 경우 바가지 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반드시 하고 문을 잠겨야 한다. 이 곳 필리핀에서도 안전벨트 미착용은 단속의 대상이다. 따라서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이다.
-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 할 것 : 특히 밤에 낯선 거리를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필리핀은 마닐라라고 하여도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로등이 별로 없으며, 경찰력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총기 소지가 허용되어 있어 외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의 언어를

가. 따갈로그어

- 주요 표현

Welcome Phillippines

Mabuhay Phillippines

English	Tagalog/ friend/ same age	old person (경어체)
Hi, hello how are you.	Hi, kumusta !	Hi, kumusta na po kayo!
Nice to meet you.	Okey, mabuti naman.	Okey, mabuti naman po.
What's your name?	Anong pangalan mo.	Anong pangalan ninyo po!
I'm Kelly.	Ako si Kelly.	Ako po si kelly.
How old are you?	Ilang taon kana!	Ilang taon na po kayo!
I'm twenty years old.	Ako twenty.	Ako po ay twenty.
Thank you very much	Maraming to!	Magkano po ito!
How much is it?	Mgkano to!	Magkano po ito!
Is five peso.	Limang peso.	Limang peso po!
Here your change.	Ito iyong sulki mo.	Ito po iyong sulki ninyo.
Where do you lived?	Saan ka nakatira.	Saan po kayo nakatira.
Do you like it?	Ah! gusto mo.	Gusto po ninyo.
I'm finished.	Tapos na ako!	Tapos na po kayo!
What's the matter?	Oh, Anong nangyari.	Oh, ano pong nangyari
Oh no! I forgot.	Ay naku! nakalimutan ko.	Ay naku po ! nakalimutan ko.
I'm looking for a shop.	Hinahanap ko iyong tindahan	Hinahanap ko po iyong tindahan
Who are you?	Sino ka !	Sino po sila
Where are you?	Nasaan ka ba !	Nasaan po sila !
Please help me.	Puwede mo ba akong tulongan..	Puwede po ba ninyo akong tulongan.
That's right.	Ah! tama ka.	Ah! tama po

I'm so busy now.	Ah! busy pa ako ngayon.	Ah! busy pa po ako ngayon.
It's easy.	Ah! madali lang.	Ah! madali lang po.
Goodbye.	Paalam.	Paalam na po.
friend	kaibigan	kaibigan ko po
please read	puwede ba pakinggan mo	puwede ba pakinggan ninyo po.
please write.	puwede ba pakisulat mo	puwede ba pakisulat ninyo po.
please repeat again	puwede ba pakiulit mo.	puwede ba pakiulit ninyo po.
Do you understand.	naintindihan mo ba!	naintindihan ninyo po.
Yes, I do.	Oo, naman	Oo, naman po.
No, I don't.	Ah! hindi.	Ah, hindi po.
Do you have any question?	Nayroon ka bang tanong!	Mayroon po ba kayong tanong!
What does it mean?	anong ibig mong sabihin.	Anong ibig niyo pong sabihin.
See you tomorrow.	bukas uli ha !	bukas uli po!
I love you.	Mahal kita.	Mahal ko po kayo!
because (why)	bakit	bakit po.
Let's go (shall we)	alis na tayo.	aalis na po tayo.
Would you like	gusto mo.	gusto po ninyo.
Come here	halika rito.	halika kayo po rito.
How much	magkano	magkano po.
Do something	may ginagawako	may ginagawa po ako.
To have to	mayroon ako.	mayroon po ako.
me, I	ako	ako po
you	ikaw	ikaw po

English	Tagalog/friend/same age	Old person
Days of the week		
Monday	Lunes	Lunes po.
Tuesday	Martes	"
Wednesday	Merkules	"
Thursday	Huwebes	"
Friday	Beyarnes	"
Saturday	Sabado	"
Sunday	Linggo	"
What is the day today.	Anong araw ngayon	Anong araw po ngayon.
Today is Monday.	Ngayon ay Lunes	Ngayon po ay Lunes
one	isa	isa po
two	dalawa	"
three	tatlo	"
four	apat	"
five	lima	"
six	anim	"
seven	pito	"
eight	walo	"
nine	siyam	"
ten	sampo	"

나. 영어회화

1) 공항에서

①탑승권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May I see your boarding card?

②이제 어디 가야 돼요?

Where should I go now?

③여권 주실 수 있으세요?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④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⑤어디서 오셨습니까?

Where are you from?

⑥담요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May I have a blanket?

⑦마중 나와 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out to meet me.

2) 물어볼 때

①죄송하지만, YMCA호텔 가는 길 좀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Excuse me.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YMCA Hotel?

(YMCA호텔은 원하는 목적지로 바꿔서)

②여기서 London Tower까지 걸어갈 수 있나요?

Can I walk to the London Tower from here?

③공중전화가 어디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a public telephone

④죄송하지만 시내 중심가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Excuse me, Please. How can I get to the town center?

⑤택시 승차장이 어디 있을까요?

Where is the taxi stand?

⑥여기로 대려다 줄 수 있어요?

Could you take me to this place?

⑦얼마나 걸려요?

How long will it take?

3) 환전할 때

①실례하겠습니다. 어디서 환전합니까?

Excuse me. Where can I change some money?

②환율이 어떻게 되요?

What's the rate of exchange?

4) 식당에서

①이 부근에 좋은 식당 하나 추천해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

②두 사람 앉을 수 있는 자리 좀 내주세요.

A table for two, Please.

③메뉴 좀 주실 수 있을까요?

May I have the menu, Please?

④계산서를 주세요.

Please let me have the bill.

⑤내가 계산할게.

I'll take care of the bill.

5) 물건사기

①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I'm just looking around.

②비싸다.

This is too expensive.

③깎아 주세요.

Can you give me a discount?

④다 해서 얼마예요?

How much are they in all?

⑤포장 좀 해주세요.

Please wrap it up.

⑥입어 봐도 되나요?

May I try it on?

⑦몇 시에 가게 열어요?(닫아요?)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close)?

6) 관광 할 때

①꼭 구경해야 할 곳 몇 군데를 가르쳐줘.

Please tell me some of the Please I should visit.

②입장료가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admission fair?

③사진 찍어도 돼?

Is it permitted to take pictures?

④매표소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ticket office?

7) 문제가 발생 했을 때

①교환 해줄 수 있습니까?

Can you change it?

②난 카메라와 여권을 잃어먹었어.

I have lost my camera and passport.

③잃어버린 물건을 어디서 신고합니까?

Where can I report my lost articles?

8)다쳤을 때

①이 근처에 병원 있나요?

Is there a hospital around here?

②약국 어디 있나요?

I'm looking for a pharmacy.

③여기가 아파요.

I have a pain here.

④아 많이 심각해요.

It's serious.

⑤나 거의 못 먹어.

I am eat very little.

9) 일상 언어

①조심해!

Take care

②아 나 서둘러야 돼.

I have to hurry.

③준비됐지?

Are you ready?

④내말 알아들었어?

Do you understand me?

⑤미안하지만 못 알아들겠는데.

Sorry. I don't understand

⑥몇시까지 와야 돼?

What time should we come back?

⑦여기가 어디야?

Where are we now?

⑧아 진짜 부러워.

I am so jealous

10)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①아 그냥 너 알아서 해

Just do it by yourself

②너도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라

you live like giving others alms too.

③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거 처음 듣네.

I have never said things so harsh like this before.

④나는 시비 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냐.

I am not a person who likes to pick fights.

⑤말이야 쉽지.

It's easier said than done.

⑥당신이 곤란해질까봐 그랬는데 모두 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I did that as I was afraid you got troubled, but I think what I've thought is wrong.

6. 출국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가. 필리핀국 비자안내 - 1년 이하의 체험학습을 하므로 단기비자가 필요하다.

가. 무사증 입국

- 필리핀은 자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입국 일로부터 21일간 무사증 체류를 허가함. (9a 비자)
- 이는 필리핀의 일방적인 조치로 단기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임.
- 필리핀 공항만 입국 시에 이민국 직원이 입국스탬프에 체류가능 기간을 날인해 줌.

나. 59일체류 관광비자 (9a 비자)

- 필리핀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 주재하는 필리핀대사관에 관광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경우 59일간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상대국을 방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관광비자의 연장

- 관광비자는 비자만료일 2주일전에 주재국 이민청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연장이 가능함.
- 최초 관광비자 연장 시에는 38일, 이후에는 30일씩(1달 단위) 연장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 최초 연장시에는 2,020페소의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연장시에는 1,010페소 내지 1,700페소 정도의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대 연장가능 기간은 6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까지)로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 6개월 이후의 관광비자 연장의 경우 본청에서만 가능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음.
- * 관광목적으로 6개월이상 체류한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과거 필리핀내 체류상황이나 정확한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항입국심사 과정에서 불법활동 가능성을 이유로 입국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 체류하는 한국인들 중 많은 수가 중개인이나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연장하고 있으나 사기나 위조연장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자신의 비자연장 문제는 이민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나. 필리핀 어학연수시 SSP 취득 관련 안내

-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거나(장기비자 소유자),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필리핀 이민청으로부터 SSP(Special Study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SSP없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나 공부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민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영어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습(개인교습 포함)을 할 때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인 SSP는 필리핀이민청 본청에 정식 등록된 어학원(또는 정식학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민청에 요청서를 발송하면, 개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이민청에 정식등록된 어학원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SSP 발급신청 구비서류(출처: 필리핀한인회 주소록)

- Certificate of Acceptance from the school and the same (입학허가서: 반드시이민청의인증-accredited-을 받은기관)
- Letter of request(요청서)
- Photocopy of Passport(여권사본:신분면 및 비자면)
- Affidavit of Support and the Proof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 Certificate from the bank (재정보증인의 한국은행잔고증명서)
- 재정보증인과 연수생 본인의 관계입증 서류 (영문주민등록등본 등)
- 연수생 본인의 현지 은행통장 사본

다. 여행자 보험사용 안내

해외 활동 참가시 가져가야 할 보험 관련 서류

1. 보험증서 지참

2. 해외 보험 약관책자 지참 (또는 해외 보험약관 책자 3page 국가별 우리말서비스 전화번호와 그 뒤에 있는 진단서와 상해 보험료 청구서 복사본 지참)

사고 발생시 처리 과정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통해 수시 문의 가능
(보험약관 책자에서 국가별 비상 전화 번호 열람)

1. 다쳤을 경우 처리 절차

①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전화 연결하여 처리 문의

② 병원에 이동 치료

③ 치료비 납부시(①번 처리를 추천함. 단, 보험증권 지참 요망)

- 현금이 없는 경우 : 우리말 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국 SOS 회사의 Medical Expense Gurantee Service가 해결

- 현금으로 본인이 지출한 경우 : 한국에 돌아와 메디컬리포트와 상해 보험금 청구서 제출 후 보험처리

◆ 병원 퇴원시 꼭 받아야 할 서류

① 담당 의사가 작성한 메디컬 리포트(진단서) 작성 : Attending Physician's Statement

② 병원 퇴원시 받는 오리지날(Original) 영수증

◆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

- ① 메디컬 리포트 - 담당의사 작성
- ② 병원에서 받은 오리지날(Original) 영수증 - 입원한 현지 병원 작성
- ③ 상해(질병) 보험금 청구서 (본인작성)
- ④ 증권서 복사본
- ◆ 보험료 청구방법
- ① 보험 담당자와 상의 후 등기우편 접수로 앞의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
- ② 보험회사 직접 방문 접수시는 앞의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의 서류지참

2. 물품을 잃어 버렸을 경우<도난 또는 사고> 처리 절차

* 단,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혜택 가능,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받기가 힘들다

- ①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전화 연결 사고 신고 및 처리 문의
- ② 현지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 후 필요 서류 작성
 - 경찰이 작성한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 작성 (경찰 직접 서명)

◆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

- ① 경찰 리포트 - 현지 경찰 작성
- ② 상해(질병) 보험금 청구서 - 본인 작성
- ③ 증권 복사본

◆ 보험료 청구방법

- ① 보험 담당자와 상의 후 등기우편 접수로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
- ② 보험회사 직접 방문 접수로 앞의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 지참

7. 비상시 참고사항

여행 트러블과 대처방법

여권을 분실했어요

만일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마닐라의 한국 대사관에 가서 재발행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방에서 분실한 경우도 전화로 연락해 두는 것이 좋다.

가. 먼저 분실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분실증명확인서)를 받는다.

나. 현지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을 발급 받는다.

- ◆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필요사항 : 사진 2매, 여권 번호와 발행 년/월/일, 여권 분실증명서(현지 경찰서 발행), 입국증명서를 작성하여 여행증명서와 같이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증명서만으로는 다음 여행지로의 여행이 불가능하여 바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지로 가야할 시는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기입해야 계속 여행할 수 있다.
- ◆ 여권과 사진, 여권번호와 발행 연월일을 메모해 놓은 것을 한 군데에 넣어 두면 함께 분실될 수 있으므로 따로 보관해야 한다. 재발행에 걸리는 시간은 사진을 한국에 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약 2주일 걸린다. 귀국편의 탑승지 국가나 그 나라로 향하는 도중에 분실한 경우는 귀국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다. 이때 약 2~3일 걸린다. 역시 사진과 신청서가 필요하다.

비행기 티켓을 분실했어요.

가. 해당 항공사의 현지 공항 또는 시내의 사무실로 가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한다.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발권지로 (한국사람인 경우 대개 서울) 전문을 보내서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현지에서 받는다.

나. 항공사에서 항공권번호와 발권년월일, 일정을 확인하는 데는 일정 시일이 걸리며, 해당 항공사의 예약 기록이 확인되면 항공권이 재발급 된다. 재발급 수수료가 티켓 1장당 약 USD 50 정도 있다.

- ◆ 아시아나 항공 02-892-5688

여행비용을 잃어버렸어요.

- ① 현금을 분실했을 때 : 이 경우는 대책이 없으면,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이 불가피하다. 자신이 현재 있는 도시에 한국 외환은행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여권 번호와 영문이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한국 외환은행지점으로 송금을 부탁하면 된다. 송금은 빠르면 1~2일, 늦어도 1주일 안에 도착합니다. 송금된 돈을 찾을 때는 송금된 지점의 은행으로 가서 여권만 보여주면 된다. 송금은 한 종류 이상의 외국화폐로 보낼 수 없고, 송금할 때 그 나라 화폐로 보내면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 ② 여행자수표(T/C)를 잃어버렸을 때 : 여행자 수표를 처음 샀을 때, 수표의 일련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어야만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시 빨리 찾을 수 있다. 만약,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여행자 수표의 번호를 기입한다. 그리고 나면 잃어버린 액수만큼의 금액을 재발행 해준다. 소요시간은 1~3일 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여행자 수표에 본인 사인이 없거나, 상하 사인이 두군데 있으면 무효이다. 요즘은 부정 신고자가 많아서 엄격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히 잃어버린 액수만을 신고해야 한다.

◆ 필요 서류 : 여권, 분실 증명서(현지 경찰서), T/C 발행 증명서(은행에서 주는 T/C 구입 자용 여분), 아직 사용하지 않은 T/C 번호.

- ③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의 발해회사, 대리점, 지점에 신고하면 되지만 다소 돈이 들더라도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점에 직접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분실시를 대비해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 ④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화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를 한다.

◆ 필요사항 : 화물 보관증서(Baggage Claim Tag)에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화물을 반환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 후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는다.

- ⑥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보상청구(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 ⑦ 호텔 Reception Desk에서 분실시 신고를 하며, 분실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 ⑧ 결국 가방을 찾지 못하게 되면 호텔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게 되는데 이때 분실신고서를 작성 후 받게 된다.

- ⑨ 만약 호텔측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시 호텔측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⑩ 혹시 가방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일정을 호텔측에 미리 얘기하여야 한다.

◆ 여행 중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다.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만약 보험에 가입해 있고 담보 항목에 휴대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지 경찰에서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의 지점에 연락해 둔다. 여행에 필요한 간편 물품은 필리핀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귀국 후 보험회사에 손해액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비용이나 보증액 등은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한다.

귀중품을 분실 했을 경우

◆ 출발전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하고 귀중품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를 꼭 작성해 와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행사 귀중품은 가능한 소지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소지시 항상 본인 몸에 소지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가 안뜨네요.

- ◆ 항공사의 파업, 기기 점검/고장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지연(Delay), No operation에는 이렇게 대처한다.
- ⑪ 당일 운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운항이 안된다고 할 경우 가능한 다른 항공편이 있는지 항공사와 체크한다.
- ⑫ 다른 항공편으로 좌석이 가능하면, 가능한 일정으로 Endorsement를 항공사로 요청할 수 있다. 이때 Endorse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항공사가 지게 된다.
- ⑬ 당일 운항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체크한 후 목적지로 연락하여 호텔이나 식당, 렌트카, 다른 약속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⑭ 지연과 No operation의 경우 기다리는 시간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당한 Claim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그 일반적인 예이며, 항공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 ◆ 2시간 정도 지연 : 음료수, 식사 등 제공
 - ◆ 당일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 호텔, 교통편, 식사, 음료수 등 제공
 - ◆ 경우에 따라 상기의 보상 외에 현금이나 당 항공사를 재이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의 쿠폰이 제공되기도 한다.
 - ◆ 다른 항공으로 Endorsement 받게 되는 경우도 다른 항공을 이용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따라 음료와 식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환자 발생의 경우

- ⑮ 병원 또는 의사를 불러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 ⑯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귀국 후 보험 처리할 수 있다. 치료비는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보험처리에 좋다. 기왕증 또는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 ◆ 보험청구시 준비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여권 복사본, 은행통장 사본, 전화번호, 사고내역서, 치료비 명세서 등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 ⑰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찰 및 응급치료를 받는다.
- ⑱ 경찰에 신고 및 한국 재외 공관에 사고사실을 알린 후 협조를 의뢰한다.
- ⑲ 피해자일 경우 : 상대방에게 사고 경위서를 경찰 입회하에 작성토록한다.
- ⑳ 치료시 나오는 경비에 대한 영수증 및 진단서를 첨부 및 수령하여 보관한다.

도둑 맞았을 때는 이렇게

- ①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를 받는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절도를 당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별도 작성해야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더 있다.
- ② 본국으로 귀국 후 Police Report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 ③ 보험사 제출시 필요서류 : Police Report, 손상품 수리견적서(영수증 포함), 여권사본, 통장사본(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④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들 : 현금, 수표, 항공권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요 연락처

◆ 주 필리핀 한국 공관 [대사관]

주소 : 10th Floor, The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1226 Makati City, M.M. Philippines(마닐라내 한국인 집결 거주지인 Makati에 위치)

전화 : (63-2) 811-6139/ 8260/ 8261/ 8262 (영사과 공통)

팩스 : (63-2) 811-6148

E-mail : dipinfom@mofat.go.kr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ph>

[영사과]

우리 재외국민 보호, 민원처리,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영사과에는 교민담당 영사, 사증발급담당 영사 및 외사 협력담당 영사가 근무한다. 이들 영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영사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상호간에 대리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소 : 18th Floor, The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1226 Makati City, M.M. Philippines

팩스 : (63-2) 811-8258

E-mail : dipinfom@mofat.go.kr

[세부명예총영사관]

* 세부명예총영사관에서는 여권.공증.비자 등 일반 민원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성명: 아우구스토 고(Augusto Go)

주소: Mezzanine Floor, UC-ICTC Bldg., Gov. Cuenco Avenue Banilad, Cebu City

Tel/Fax : (63-32) 231-6345

◆ 주요업무 및 연락처

1. 공관 업무시간, 공휴일 및 공관내 업무분장

가. 근무시간(월-금요일)

1) 근무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2) 민원서류 접수 및 교부시간

- 여권, 공증 : 접수/교부 (오전) 9시 ~ 12시 / (오후) 1시 30분 ~ 4시

- 비자 : 접수 (오전) 9시 ~ 11시 / 교부 (오후) 2시~4시

3) 시차 : -1 (필리핀 시간이 한국시간 보다 1시간 늦음)

나. 근무시간외 비상연락(당직) 전화

◆ 근무시간이후 또는 휴일에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건.사고 발생시

- 1) 필리핀에서 전화시 : (휴대폰) 0917-817-5703
- 2) 외국에서 전화시 : 63-917-817-5703

** 위 긴급시 이용하는 당직전화가 연결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0917-884-5420로 연락

** 일반민원 문의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근무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까지)에는 영사관 전화 (811-8260~62)를 하시거나 전자민원을 이용

◆ 담당업무 및 직원명단

1) 여권(여행자증명서 포함), 공증, 병역, 호적, 한인회, 한인단체(재외국민등록 포함), 한글학교 : 문광식 영사(내선번호 : 305)

2) 비자, 출입국, 불법체류 : 박규범 영사(내선번호 : 306), 안규석 영사(내선번호 : 200)

3) 사건.사고(형사사건), 주재국경찰청과 업무협조 : 서대용 영사(내선번호 : 308), 박기태 영사(내선번호 : 307)

4) 사건.사고, 수감자 관리, 행려병자 지원, Legal Assistance : 안민식 영사(내선번호: 309)

◆ 대사관휴무일

8.15 광복절

8.21(화) Ninoy Aquino Day

8.27(월) National Heroes' Day

10. 3 개천절

10.12(금) Eid ul-fitr-Ramadan

11.1(목) All Saints Day

11.2(금) Special Non-working day

11.30(금) Bonifacio Day

참가자 영문 이름 및 여권 번호

이름	영문 이름		여권번호	생년 월일	여권 만료일
	Surname	Given names			
김강산	KIM	KANG-SAN	KY0074890	25 APR 1991 (1991. 4. 25)	12 JUN 2012
김혜림	KIM	HYERIM	GB0622546	27 MAR 91 (1991. 3. 27)	14 JUL 10
라윤정	RA	YUNJEONG	NW1082849	27 NOV 91 (1991. 11. 27)	27 DEC 09
박민주	PARK	MIN JU	GW0634345	21 AUG 1991 (1991. 8. 21)	22 DEC 2011
박철중	PARK	CHEOLJONG	GW0542777	10 NOV 1991 (1991. 11. 10)	31 DEC 2008
양은정	YANG	EUN JEONG	JJ0312736	24 NOV 92 (1992. 11. 24)	02 JUN 09
유태영	YOO	TAEYOUNG	GK1557804	13 APR 91 (1991. 4. 13)	31 DEC 08
윤이원	YOON	YI WON	JB0909444	09 FEB 1990 (1990. 2. 9)	18 JUN 2012
이성주	LEE	SUNGJU	JB0888176	22 APR 1991 (1991. 4. 22)	20 APR 2012
이슬비	LEE	SEUL BI	GG0260915	17 SEP 1991 (1991. 9. 17)	05 APR 2012
이운	LEE	WOON	KR0318470	15 MAR 1992 (1992. 3. 15)	15 DEC 2011
이지선	LEE	JEESUN	JR3329561	25 AUG 1991 (1991. 8. 25)	25 MAY 2011
이태근	LEE	TAE KEON	SQ0286630	20 MAR 1991 (1991. 3. 20)	29 NOV 2011
장시내	CHANG	SHINEA	MP0389178	29 MAY 1991 (1991. 5. 29)	18 JUN 2012
전유림	JUN	YOU LIM	GG0233303	13 SEP 1991 (1991. 9. 13)	19 DEC 2011
전종명	CHUN	JONG MYUNG	NW0330673	21 JUL 91 (1991. 7. 21)	06 JUL 2008
한이정	HAN	YI JUNG	MP0398395	29 NOV 1991 (1991. 11. 29)	11 JUL 2012
한진규	HAN	JIN GU	JB0903668	15 JUL 1991 (1991. 7. 15)	05 JUN 2012
홍상미	HONG	SANGMEE	TM0744444	09 JAN 74 (1974. 1. 9)	07 JAN 10
오필선	OH	PIL SUN	JR1358137	29 JUN 70 (1970. 6. 29)	16 MAY 2010

주요 체류지 주소

◆ 다스마리냐스 어학원(IEC)

주소 : 3rd Floor Gardenville Bldg. Congressional Ave. Buro Main, Dasmarinas. Cavite

개인 연락처 : 0927-558-2307

◆ Enigmata Treehouse

주소 : Maubog, Balbagon, Mambajao, Camiguin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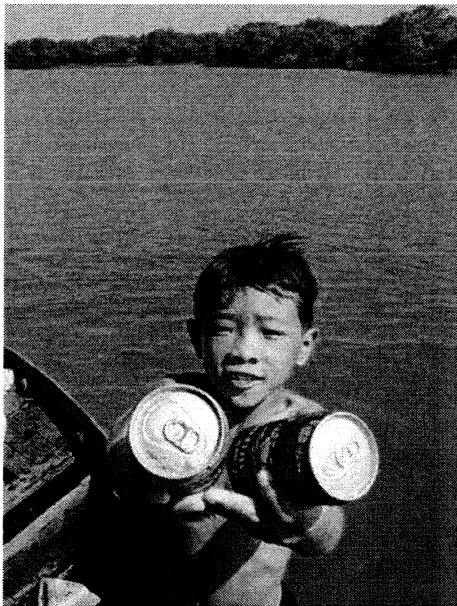
전화 : 088-3870273

휴대 전화 : 09182304184

Email : enigmatatreehouse@yahoo.com

책임 여행

지난해 앙코르와트를 다녀온 김정선씨(32)는 여행을 돌이킬 때마다 찝찝하다. 수백년된 인류의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기념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다. 고무 대야를 타고 다니며 구걸하던 톤레삽 호수 수상마을의 어린이들도 마음에 걸린다. 관광객 때문에 여행지가 망가질까봐 걱정스럽다. 김씨 같은 여행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여행업계에서는 ‘책임여행(Responsible Toursim)’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행을 통해 여행국가의 경제·자연·문화를 보존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국적 체인 레스토랑·리조트 대신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할 것을 권한다. 여행이 여행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 책임여행은 여행업계에서의 ‘윤리적 소비’다.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수에서 한 어린이가 관광객들에게 음료수를 팔고 있다. ‘책임여행’은 이렇게 영벌이를 위해 거리로 내몰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노동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캄보디아/박재찬기자

현지의, 현지에 의한, 현지를 위한 여행

영국의 리스판서블트래블닷컴(www.responsibletravel.com)은 2001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책임여행 전문 여행사다. ‘책임있는 여행자’와 현지 여행사를 연결해주는 한편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앙코르와트 청소여행, 베트남 요리 배우기 여행, 프랑스 요리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의 경우 ‘가장 싸게 짐꾼을 구할 수 있는 여행사’ 대신 ‘포터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여행사’를 소개하는 식이다. 똑같은 리조트 여행도 대형 체인 리조트 대신 현지 주민이 운영하는 작고 친환경적인 리조트를 권장한다. 이 업체의 매출은 매년 4배씩 뛰고 있다.

책임여행은 200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리스판서블트래블닷컴 외에도 슬로 트래블(www.slowtravel.com), 그린 글로

브(www.greenglobe.org), 에티칼 에스케이프(www.ethicalescape.co.uk) 등의 여행사 및 여행관련 단체들이 책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대형 여행사인 토마스 쿡, 마이 트래블 등은 현지 고용을 우선해 여행이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책임여행 정책’을 공고하고 있다. 힐튼·페어몬트 등 대형 호텔 체인에서는 1회용품 안쓰기, 타월 재활용 하기 등의 친환경 정책을 편 지 오래다. 미국에서도 윤리적 여행자(www.ethicaltraveler.org)라는 시민단체가 활동 중이다.

비행기를 타지 않는 여행

최근 책임여행계에서는 ‘비행기 여행하지 않기’가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행기가 배출하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 지난 4월말 주한 영국대사관이 주관한 한·영 환경운동가 세미나에서는 영국 환경운동가들이 굳이 비행기를 탈 이유가 없다고 통보해와 긴급히 화상회의로 대체되기도 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가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없애기 위해 나무 심기 등 탄소 줄이기 운동을 벌이는 단체에 기부하자는 프로그램도 생겼다. 클라이미트 케어(www.climatecare.org/responsibletravel/calculators)에서는 비행거리만큼 배출한 탄소의 양을 계산해준다. 서울~방콕 1인 왕복의 경우 810kg의 탄소가 배출되고, 이를 없애려면 6파운드가 필요하다.

유럽 대형 여행사 크리스탈 홀리데이는 최근 항공권을 구입할 때 비행거리에 따른 탄소배출량만큼의 기부금을 내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리스판서블트래블닷컴은 ‘난 비행기 안 탈거야(I don't want to fl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랑스 남부 자전거 투어, 스코틀랜드 카약 여행 등을 소개하고 있다.

군부가 지배하는 미얀마 여행 반대

책임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군부독재가 지배하는 미얀마는 여행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관광객이 쓰는 돈이 군부독재 유지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세계적으로 고립된 미얀마 군부에 관광객은 유일하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다.

여행을 하더라도 군부가 운영하는 국적기나 국영업소 대신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외국 항공사와 사설업소를 이용한다. 배낭여행 전문여행사 엔투어 김신철 팀장은 “여행자 대부분이 군부가 운영하는 국영버스 대신 낡고 비싼 사설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표를 팔 때에도 ‘국영버스냐 사설버스냐’를 물어볼 정도”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대형 리조트 건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영국의 여행 전문 시민단체 투어리즘 컨선(Tourism Concern)은 2005년 바하마 비미니 섬의 힐튼 리조트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골프장과 카지노가 포함된 새 리조트 건설이 자연을 훼손하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 쓰나미가 휩쓸고 간 푸켓에 대형 리조트들이 잇달아 들어서는데 대해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집 없이 떠돌고 있는 마당에 리조트 건설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펴기도 했다.

한국인 63% “책임여행에 돈 더 쓸 수 있다”

한해 출국자가 1200만명에 이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책임여행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경우에도 쓰나미 피해 지역을 여행할 때 관광객들로부터 못 입는 옷을 기부받아 전달하는 정도다. 그러나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가 지난 2월 한국·인도·중국·독일 등 10개국 5050명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63%가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보존하는 책임있는 여행에 여행경비의 25%까지 더 쓸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 여행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여행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컨설팅팀 박태원 연구위원은 “ 해외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기존 여행방식에 식상한 사람들이 돈을 좀더 주더라도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새로운 체험을 해보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 책임여행이 단지 현지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여행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음을 감안해 책임여행이 시기 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 교포들이 운영하는 식당, 숙박업소, 가게 등을 이용해 교포를 돕자는 것이 한국인들의 정서”라며 “ 현지인을 배려하는 책임여행은 아직까지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책임여행, 이렇게 즐겨라!

- ①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한다: 대형 체인 리조트나 식당 대신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식당, 여행사를 이용한다.
- ② 어린이에게 사탕이나 선물, 돈을 주지 않는다: 정말 돕고 싶다면 현지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호단체를 통하라.
- ③ 간단한 현지어를 미리 배워둔다: 서툰 현지어로 말하는 ‘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 마디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
- ④ 현지 물가를 존중하라: 그들보다 100배 많이 버는 당신이 좀더 비싼 외국인용 입장에 분노할 필요는 없다.
- ⑤ 흥정은 적당히 하라: 바가지를 씌우는 물건은 깎되 정당한 비용은 지불하라.
- ⑥ 인물 사진은 물어보고 찍자: 안된다고 할 경우엔 포기하라. 사진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 ⑦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 제품은 피한다: 거북이알 수프, 악어 핸드백은 사지 말자.
- ⑧ 문화적 차이와 금기를 미리 배우고 존중하라: 태국에서는 아무리 귀여워도 아이들의 머리를 두드리면 안된다. 네팔 가정집 안에서는 우산을 펴면 안된다.
- ⑨ 현지 드레스 코드에 맞춘다: 사원에 들어갈 때에는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한다. 현지인들이 어떻게 입는지 살펴보자.
- ⑩ 현지의 정치·사회 현황을 미리 알아두라: 가이드북의 역사·정치란을 미리 읽고 출발하자. 백과사전에서 여행할 국가 항목을 찾아 읽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참고: 윤리적 여행자 www.ethicaltraveler.org

지속가능한 여행 www.sustainabletourism.net

▲ 책임여행이란?

관광객은 여행국가의 경제·환경·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다. 특히 관광객의 윤리적 책임에 무게를 둔다. 기존 대규모 패키지 형태의 관광을 지양하고 나온 대안 관광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생태관광(Eco Tourism)과 함께 쓰인다. 이들 대안관광은 1992년 리우회담을 계기로 제시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명애기자 glaukus@kyunghyang.com>

출처 :작은 것이 아름답다

8. 필리핀 체험학습 TIP

1. 2006년 4학년(03학번) 이 전하는 필리핀 체험 학습 가이드

☑ 필리핀에서 살아남기

1. 준비작업

- 1) 개인준비물 : 전자사전, 옷(긴팔, 긴 바지), 코드 변환기, 시러스 카드, 지퍼백, 고추장, 스노클링 장비 권장, 물놀이 복장
- 2) 전체준비물 : 한복, 단체 선물, 홈스테이 선물, 공연 준비물(소품, 음악CD, 음향기기)

2. 필리핀 가기 전에 준비할 것

- 1) 방문할 단체에 대한 사전지식 공부
- 2) 간단한 생활 영어회화 공부
- 3) 간단한 따갈로그 회화 공부
- 4) 필리핀 물가 조사
- 5) 필리핀 문화 조사
- 6) 자료집 만들기
- 7) 공연준비(사물놀이, 몸짓, 합창 등)
- 8) 여권 만들기(유효기간 확인-6개월 이상 유효 기간 있어야 함)
- 9) 시러스 카드 만들기
- 10) 수영 배우기(죽기 싫으면)
- 11) 모기약, 바퀴벌레 퇴치약(신기패) 필수
- 12) 생활 수칙 구체적으로 확실히 정하기
- 13) 마닐라 공항 이용료(500페소) 준비
- 14) 화물로 붙이는 가방에 귀중품 넣지 않기
- 15) 기내에 액체용품 들고 타지 않기
- 16) 채식주의 기내식 원할시 24시간 전 미리 연락하기
- 17) 역할 분담 세분화하기
- 18) 영상 촬영을 위한 캠코더, 테이프 충분히 준비
- 19)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서류와 약 60달러 준비
- 20)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짐 최대한 줄이기
- 21) 환전할 때는 페소보다 달러가 유리함
- 22) 필리핀 왕복 항공권은 1년 오픈으로 끊고, 민다나오 항공권은 빨리 끊을수록 할인 받을 수 있다.
- 24) 읽을 책 몇 권 가져가기
- 25) 3개월 동안 미용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기 전 준비하고 가기

3. 마닐라

- 1)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기(필리핀은 총기소지 가능)
- 2) 땀기열 모기 조심(밤 6시 이후 무릎 아래 조심-긴 옷 필요)
- 3) 필리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필리핀 사람들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극단적

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

- 4) NGO 단체 배려하기(에어컨 사용하지 않기)
- 5)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사전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이루어 져야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함)
- 6) 단체 방문 후 자세한 기록 필수
- 7) 힘들어도 영어로 말하도록 노력하기
- 8) 역할 분담 시 자료 수집 역할 포함하기
- 9) 영상 촬영 절대 필요
- 10) 동전 지갑과 잔돈 필요
- 11) 택시 이용 시 미터기 확인

4. 다르마리나스

- 1) SM 자제 필요(민다나오에서 살 것이 아주 많음)
- 2) 용돈 관리(SM가는 길에 귀중품 조심)
- 3) 여행지 사전에 알아보고 가기
- 4) 바닷가 안전사고 주의
- 5) English Movie 자주 보되, 한국 드라마 자제할 것
- 6) 필리핀 가기 전 영어 공부는 필수. 영어를 해야 밥을 먹는다.
- 7) 전기 아껴 쓰기. (에어컨 많이 사용 할 경우 전기세, 냉방병 조심)
- 8) 태풍 대비해서 물 아껴 쓰기(태풍으로 인해 물이 절수되면 빗물 받아쓰기)
- 9) 태풍 대비해서 실리콘 가져가기
- 10) 신기패 필요
- 11) 아떼한테 의존하지 않고 집 청소 스스로 하기
- 12) 집 열쇠 관리 잘하기
- 13)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기

5. 민다나오

- 1) 공항이 좋지 않으니 빨리 가서 기다릴 것
- 2) 마닐라에 비해 추울 수 있으니 긴 옷 준비(특히 와와이 부족)
- 3) 이동 중 짐이 많으면 힘들니 최대한 짐을 줄일 것
- 4) 기념품 살만한 것이 많으니 용돈을 아껴 쓰는 것이 좋음
- 5)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일정이 빽빽할 경우)
- 6) 과일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을 경우, 씨와 껍질을 발라낸 후 가져와야 함
- 7) 마닐라에 비해 과일이 싸니 과일을 많이 먹어보고 올 것
- 8) 장시간 이동할 경우 무조건 30인용 이상 버스 대여
- 9) 멋있는 곳이 많으니 사진 많이 찍기
- 10) 캠프 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영어 공부 필요)
- 11) 우리 나라 전통의상 준비
- 12) 우리 나라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연 준비 많이. 선물도 많이 준비.

2.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들

필리핀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옷들도 정말 많다고 5학년 학생들에 말인데...
그걸 가서 맘에 드는거 아무거나 골라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망고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두리안도 그렇게 맛있다고 한다.(태쌤 인터뷰중)
국내에 망고를 가지고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씨를 말린 망고가 좋을 듯싶다.
왜냐하면 그게...문익점선생이 목화씨를 들어올 때 사회적 파장이 컸을걸?? 모르겠다.
두리안 사탕을 사서 기숙사의 배고프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적선해주면 아마도 감사해 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필수품으로 사올 것이 100페소짜리 편안한 바지다.
그거 2개정도 사오면 아마 후회는 없을 듯싶다. 잠옷도 되고 노력할 때도 되고...
그러나 필리핀 사람체형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입기에는 조금 부담될 정도로 작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 쇼핑몰에서 맛있는 과자를 섭취한 다음에는 꼭 이빨을 닦자.
필리핀에서 보다 나중에 한국 치과에서 돈 더 많이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길거리 쇼핑에서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먹을거리가 아닐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것!!
잉태한 달걀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 고기가 아닐까 싶다. 둥근옴하~의 말로는 자기가 먹었다고 하는데...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라면 꼭 한번 먹어 봤으면
좋을 것 같다. 또!! 빈민가에서 파는 쥐 고챙이 구이 먹어보고 싶다.
내가 어젯밤에 꿈에서 그 고기를 먹어봤는데 마치 삭스핀의 맛과 흡사했다.
삭스핀은 아직 못 먹어봤지만...

간단한 쇼핑TIP

다쓰마에서 돈을 많이 쓰지마!!(특히 SM 물) 이상이다.

두꺼비 지갑

쇼핑몰 중에는 더러 두꺼비껍질 지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두꺼비껍질 지갑은 고품스러운 가죽이 우리의 오감을 대료시킨다. 그리고 맘에 안 든다.
돈을 쓰기 싫은 찐들이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그런 가죽지갑은 돈이 잘 안 빠진다는 설이 있거당?? 그러니깐 주위 분들에게 추천해주세요~

먹을 것을 즐겨라!!

다쓰마에는 먹을 것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리스형의 말로는 버거머신이란 곳에서 단돈 2000원이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지갑이 굶주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길거리에서 파는 맛있는 고치. 단돈 0.2페소라고 한다. 귀가 솔깃해지는구만!!

거기 가서 필리핀 산외의 것은 우리나라의 값과 똑같거나 더 비싸니까 건드리지마.

깔라만시

물에 타먹는 무언가....시큼한맛?? 식초를 타 먹는게 낯것인가.. 아니라고 한다..
단맛도 난다고 한다. 아무튼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무조건 사주세요.

그리니치

대세다. 맛있다.

뽕즙??뚜즙?뚜즙?

맛있다.직접가봐라~이름도 가서 정확히 알아서 알려주세요.

함께 부르는 노래

평화가 무엇이나

글 문정현, 조약골

곡 조약골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빼앗긴 자 힘없는 자 마주보고 손을 잡자
새 세상이 다가 온다 노래하며 춤을 추자



친구하자 2

협동의 노래

곳거리로 춤추며

별음자리표

Chords: F, C, C, C7, F, F, F7, Bb, F, Gm, C, F, Bb, F, Gm, C, C7, F

Lyrics:
F C
씩 이 하 나 들 때 도 꽃 한 송 이 필 때 도
사 - 람 이 날 때 나 못 생 명 이 날 때 나
C C7 F F F7
하 세 상 늘 땅 물 이 도 와 야 하 죠
하 세 상 모 는 것 이 도 와 야 하 죠
Bb F Gm
갓 사 지 - 람 과 풀 모 꽃 은 도 생 - 명 을 농 이
C F
하 손 늘 잡 밍 고 바 기 대 고 물 어 한 우 방 러 올 저
Bb F Gm
모 서 든 생 명 와 나 와 며 이 어 저 살 있 죠
모 서 든 생 명 와 나 와 며 이 함 게 살 아 죠
C C7 F
세 더 더 상 들 모 어 든 꿈 중 깃 꾸 추 들 며 도 살 - 우 며 살 가 죠
세 더 더 상 들 모 어 든 꿈 중 깃 꾸 추 들 며 도 살 - 우 며 살 가 해 죠
D.S. al Fine

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향기롭게 환하게
더불어 손잡고 춤추며 노래하며
관계를 나누는 협동하는 관계로
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redClef.net / 2004. 11. 9.

함께 하는 사람들~~

오필선 stonechr@hanmail.net

홍상미 egoyan@hanmail.net

이윤신 mooindoin@hotmail.com

김강산 k0425@hanmail.net

김혜림 khr327@hanmail.net

라윤정 pilkyo7991@hanmail.net

박민주 eun-dan@hanmail.net

박철종 dkswlqor@purnet.com

양은정 1992-go@hanmail.net

유태영 yootaeng@hanmail.net

윤이원 00girl2@hanmail.net

이성주 tjdwnsa@hanmail.net

이슬비 lsb3130@naver.com

이지선 dighdlwtjs@hanmail.net

이 윤 cjdtnsdlcthsu@hanmail.net

이태근 idootk@hanmail.net

장시내 stream-jang@hanmail.net

전유림 junyoulim91@hanmail.net

전종명 yul2132@hanmail.net

한이정 kityna51@hanmail.net

한진규 asdf22no@naver.com

